www.kfishinfo.net



K·FISH Information Center

한국산 수산물의 독일·영국 시장 진출 전략



해외시장 심층 분석

EUROPEAN UNION *vol.8*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K-Fish Information Center

CONTENTS

목차

요약 • 01

제 1 장 EU 수산물 생산 동향 • 05

제1절 독일 수산물 생산 동향 • 06
1. 시장 개요
2. 어업별 생산 동향
3. 류별품목별 생산 동향

제2절 영국 수산물 생산 동향 • 15
1. 시장 개요
2. 어업별 생산 동향
3. 류별품목별 생산 동향

제 2 장 EU 수산물 교역 동향 • 23

제1절 독일 수산물 수출입 동향 • 28
1. 수출 동향
2. 수입 동향

제2절 영국 수산물 수출입 동향 • 36
1. 수출 동향
2. 수입 동향

제 3 장 EU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동향 • 45

제1절 독일 수산물 유통 동향 • 46
1. 식품 유통 동향
2. 수산물 유통 동향

제2절 독일 수산물 소비 동향 • 51
1. 식품 소비 동향
2. 수산물 소비 동향

제3절 영국 수산물 유통 동향 • 60
1. 식품 유통 동향
2. 수산물 유통 동향

제4절 영국 수산물 소비 동향 • 68
1. 식품 소비 동향
2. 수산물 소비 동향

제5절 EU 수산물 인증 동향 • 74
1. EU 수산물 품질 인증

제 4 장 EU 수산물 통관 동향 • 77

제1절 EU 수산물 통관 개황 • 78

제2절 EU 수산물 검역 · 검사 • 87

제3절 EU 수산물 ·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 • 88

제 5 장 한국산 수산물 진출 시사점 • 93

제1절 독일 진출 전략 • 94

제2절 영국 진출 전략 • 95

참고문헌 • 96

부록 • 97

요 약

EU 수입중심형 교역 구조로, 빠른 수입 증가세

- EU는 수산물 수출액이 290억$, 수산물 수입액은 470억$로 수입중심형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이 중 독일과 영국은 EU의 제 2, 5위 수산물 교역국으로 EU내 차지하는 위상이 높음
  - 독일의 수산물 수출액은 31억$, 수입액은 60억$로 연어, 어분, 대구 등을 수출하고 연어, 대구, 새우, 명태 등을 수입함
  - 영국은 수산물 수출액이 25억$, 수입액은 45억$로 주로 연어, 바닷가재, 고등어 등을 수출하고 새우, 대구, 연어, 다랑어 등을 수입함

중국 및 신흥국(ASEAN) 등지로 교역국 다변화 추세

- EU 국가들 간의 교역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 독일의 수산물 수출은 주로 EU 내 국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입은 EU 내 국가 50.7%, EU 외 국가 49.3%로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음
  - 영국의 수산물 수출은 EU 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산물 수입은 주로 EU 외 국가로부터 수입(66.8%)하고 있음

독일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명태, 해조류 등

- 독일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다랑어와 캐비아 대용물, 명태, 해조류 등으로 특히 다랑어와 캐비아 대용물의 수입이 2013년~2015년간 크게 증가함
  - 명태는 EU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이었으나 한국에서 명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14년 이후 수입이 급속히 감소함
  - 이외에 김, 미역, 다시마 등을 포함한 해조류, 굴, 소금 등을 수입하고 있음

영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다랑어, 굴, 해조류에 집중

- 영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다랑어, 굴, 해조류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2013년~2015년간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임
  - 이는 영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인 다랑어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임

EU, 물류산업 발달에 기인하여 수산물 유통에 유리한 구조

- 독일의 물류산업 생산액은 2,300억 유로로 총 35개의 물류단지가 있으며 물류단지 내 창고, 운송, 포장 등 기본적인 물류서비스는 물론, 대부분 단지 내 세관, 금융과 보험 등의 기관, 차량 서비스센터, 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인프라가 발달한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수산물은 물류업체, 도매업체, 가공업체,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거쳐 유통되고 있음
  - 냉동 수산물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선어류 역시 에데마, 카우프란트, 레베 등 독일의 대형마트에서 판매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인기상품으로 자리잡음
- 영국 역시 유통 인프라가 잘 발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비용절감을 모색하는 추세이나, 민간부분에서는 중개상을 활용하는 공급비중이 여전히 높음
  - 영국 수산물은 중간 도매상, 도매업체, 가공업체, 재래시장 및 유통체인 등을 거쳐 유통됨
  - 수산물은 주로 대형 유통체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의 주요 유통업체의 수산 제품은 간편식, 소포장, 흰살 생선, 갑각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수산물 소비시장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독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대로 수산물 소비시장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산업별로는 수입어류를 활용한 소비시장이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수입산 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은 도매, 가공업, 소매 등의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남 · 북간 큰 차이를 보이며, 북해 및 발트해 해안을 접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위치한 주의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편임
  - 부류별로는 해수어 소비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담수어 및 담수어 제품, 갑각류, 연체동물 순임
  - 가장 선호하는 어종은 연어, 청어, 다랑어이며 주로 가정에서 수산물을 소비함
- 영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높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식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세계에서 1인당 HMR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로 HMR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무첨가식품 시장이 활성되고 있음

– 인증 취득 여부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냉동 수산물보다 신성 · 냉장 수산물의 선호도가 높고 흰살 생선류와 갑각류 소비가 기타 어종에 비해 높은 편임

– 주요 소비 수산물은 연어, 대구, 참치, 새우, 해덕이며 최근 연어 소비량이 크게 상승함

– 지역별로는 웨일스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순임

– 지속가능한 수산물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음

EU, 인증 취득 여부는 중요한 수산물 구매 결정 요인

• EU 소비자들은 인증 및 라벨링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를 근거로한 구매가 많은 편임

– 각 인증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품질 등을 판단하고 있음

– 수산물과 관련한 알려진 인증으로는 MSC, ASC, BAP, GLOBAL GAP, Bio Siegel, FOS, Naturland 등이 있음

EU 28개국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유럽공동관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EU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 단계, 등록 단계, 어획 단계, 가공 단계, 판매 단계를 거치게 됨

– 우선 승인 단계에서는 EU 수출가능 국가승인을 유럽위원회에서 하게되고 등록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EU 수출가능 어획선박을 등록해야 함. 이후 수출을 위해서는 EU 수출가능 생산 · 가공 공장 등록이 필수적임

– 또한 어획을 하면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가공을 거치게되면 위생증명서를 발급받고, 판매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라벨링, 중금속 기준 등을 따르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라벨링 제작시, 보다 주의가 필요

– EU는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라벨을 통해 제품 어획 및 생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식품표기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음
- 필수정보는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가능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함
-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일반 의무사항과 더불어 제품별로 필수 표시사항이 추가됨
- 해면 어획 수산물(활어, 신선, 냉동상태)의 경우 어종 명칭(예 : 자연산 연어), 학명(예 : Pollachius virens), 어획지역(일부 세부 어획지역) 및 어획 방법(예 : 트롤어선)은 필수적으로 표시가 요구되는 항목임

K-Fish Information Center

CHAPTER / 1

EU 수산물 생산 동향

제 1 절 독일 수산물 생산 동향

제 2 절 영국 수산물 생산 동향



EU 수산물 생산 동향

EU 수산물 생산 개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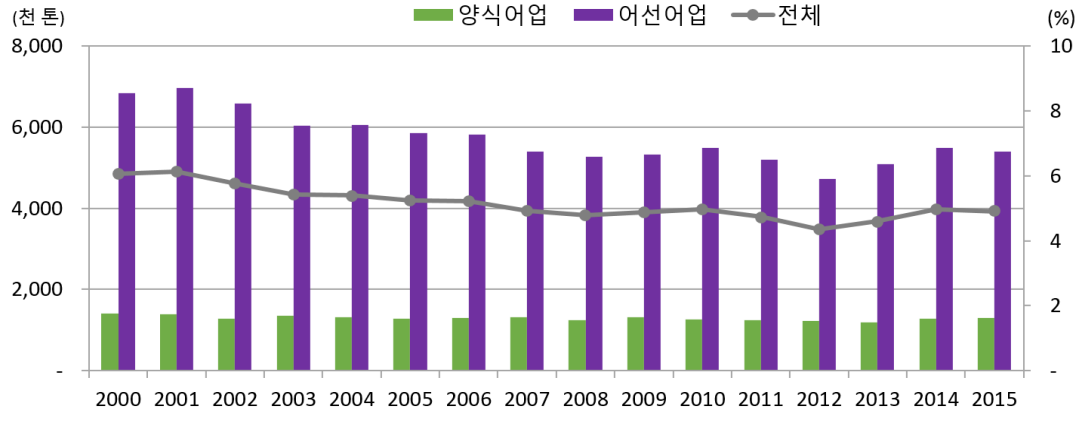
2015년 EU 수산물 생산량은 666만 8천여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를 차지

- 아시아(74%), 북미(11%) 지역에 이어 3위에 해당됨
- 어선어업 중심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12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생산은 반등함

- 어선어업 생산량은 5,309천여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며, 주로 청어, 대구, 고등어 등을 생산함
- 양식어업 생산량은 1,277천여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연어, 홍합, 송어 등을 생산함

〈그림 1-1〉 EU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백만 톤, %



주 : 1) FAO 생산 통계 자료의 EU 28개국 기준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1) FAO에서 집계한 EU 28개국 수산물 생산량 기준임

EU 수산물 생산은 어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어류가 전체 생산의 81%를 차지함(최근 3년)

- 부류별 살펴보면, 어류가 5,349천 톤(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류 822천 톤(12.5%), 갑각류 205천 톤(3.1%), 두족류 124천 톤(1.9%), 해조류 84천 톤(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어류, 패류, 갑각류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두족류, 해조류의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임

〈표 1-1〉 EU 류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6,452	5,942	6,275	6,784	6,699	6,586	100.0
1	어류	5,186	4,726	5,073	5,516	5,458	5,349	81.2
2	패류	851	809	770	830	865	822	12.5
3	갑각류	222	200	198	216	201	205	3.1
4	두족류	111	129	127	127	118	124	1.9
5	해조류	81	75	104	93	55	84	1.3
6	기타 수산동물	1	1	2	1	2	2	0.02
7	연체류	1	1	1	1	1	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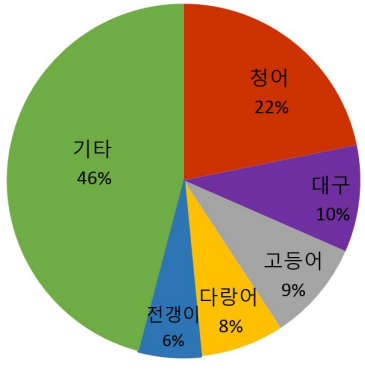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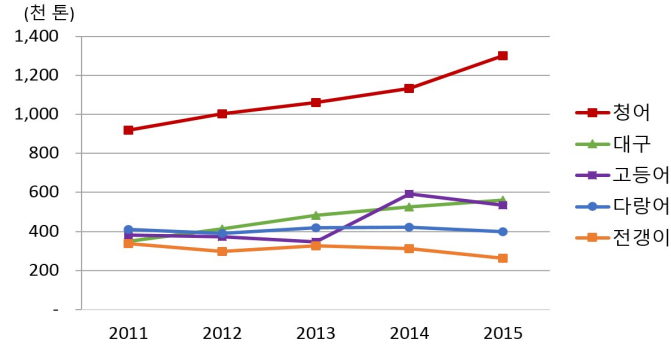
(어류) 청어, 대구, 고등어가 주로 생산되며, 상위 5개 어종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상회함

- EU 국가의 주요 어류 생산 어종은 청어로 1,165천 톤을 기록해 어류 전체 생산량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524천 톤), 고등어(491천 톤), 다랑어(413천 톤) 등의 순임
- 상위 5개 어종이 어류 전체 생산량의 5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청어, 대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EU 어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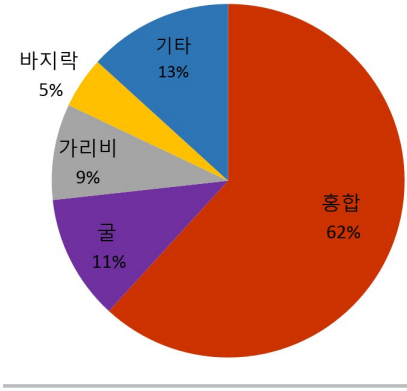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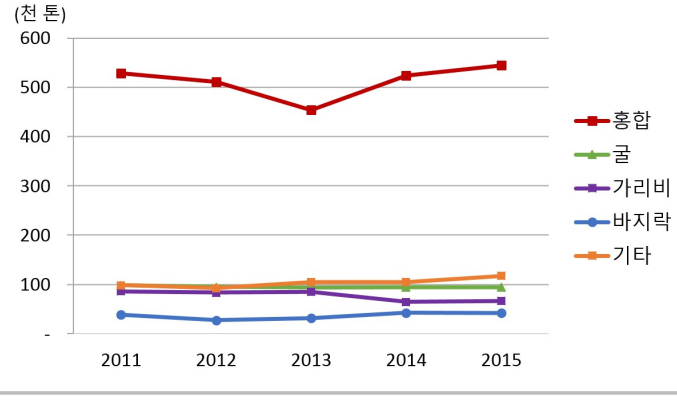
(패류) 홍합, 굴, 가리비, 바지락 등이 주로 생산됨

- EU의 주요 패류 생산 품목은 홍합으로 508천 톤을 기록해 패류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굴(94천 톤), 가리비(72천 톤), 바지락(39천 톤) 등의 순임
- 상위 5개 품목이 패류 전체 생산량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1년 이후 패류 생산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함

〈그림 1-3〉 EU 패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독일 수산물 생산 동향

1) 독일 수산물 시장 개요

독일 수산물 생산, 유럽 내 제8위 수산물 생산국으로 어선어업 중심의 구조

- 독일의 수산물 생산량은 EU 28개국 가운데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이어 8위에 위치하고 있음 (EUROSTAT 2016년 연례보고서)[2)]
- EU 수산물 총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어선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함
- 주요 생산 품목은 청어, 대구, 고등어 등 어류 중심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수산물 생산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표 1-2〉 독일 수산물 생산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수산물 생산량 (천 톤)	전체	260	269	292
	어선어업	235	243	262
	양식어업	25	26	30
부류별		2013년	2014년	2015년
어류		238	247	264
갑각류		17	17	15
패류		5	5	13
두족류		3	11	40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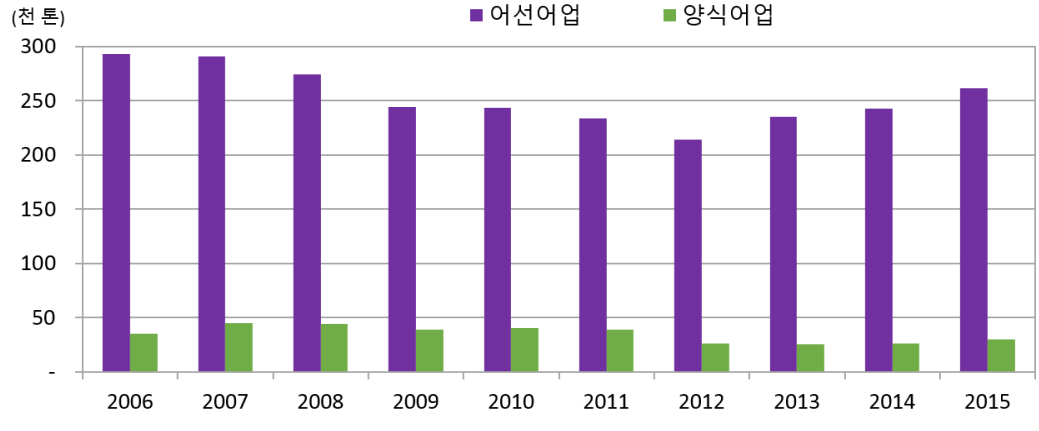
2) European Un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Collection: Statistical books(2016), p.178

감소세를 보이던 수산물 생산은 2012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수산물 생산은 여타 EU국가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래로 감소해 왔음
-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됨
- 어선어업 중심의 생산구조로 어선어업 생산량에 따라 수산물 전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

〈그림 1-4〉 독일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주 : 1) FAO 생산 통계 자료의 EU 28개국 기준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2) 어업별 생산 동향

2015년 독일 어선어업 생산량은 262천 톤으로 최근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 수산물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06년 273천 톤에서 2012년 197천 톤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3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 어선어업 생산의 류별 세부 동향을 보면 약 93%가 어류로 독일의 주요 생산 어종인 청어, 대구, 고등어, 정어리, 가자미, 전갱이 등 모두 어선어업을 통해 생산됨
- 갑각류는 어선어업을 통해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

〈표 1-3〉 독일 어선어업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234	214	235	243	262	238	100.0
1	어류	215	197	218	226	245	220	92.8
2	갑각류	18	17	17	17	15	17	7.1
3	패류	0	0	0	0	0	0	0.2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2015년 독일 양식어업 생산량은 30천 톤으로 송어, 잉어, 메기 등의 어류와 홍합, 굴과 같은 패류가 중심이 되어 생산됨

- 2000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66천 톤에서 2015년 30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20천 톤대를 유지하고 있음
- 송어, 잉어는 양식어업을 통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류로 전체 양식 어류의 약 80%를 차지하며, 그 외 메기, 뱀장어, 연어 등이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됨
- 패류 양식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일부 회복기과 침체기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표 1-4〉 독일 양식어업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39	26	25	26	30	27	100.0
1	어류	18	19	20	21	19	20	73.6
2	패류	21	7	5	5	11	7	26.4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3) 류별 · 품목별 생산 동향

부류별로는 어류가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수산물 생산은 어류가 240천 톤(89.9%)으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갑각류 17천 톤(6.3%), 패류 10천 톤(3.8%), 두족류 15천 톤(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생산 부류인 어류는 청어, 대구, 고등어 중심, 갑각류는 새우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패류와 두족류는 독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며 패류는 홍합, 굴 중심, 두족류는 꼴뚜기가 생산됨

〈표 1-5〉 독일 류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273	241	260	269	292	267	100.0
1	어류	234	217	238	247	264	240	89.9
2	갑각류	18	17	17	17	15	17	6.3
3	패류	21	7	5	5	13	10	3.8
4	두족류(톤)	12	7	3	11	40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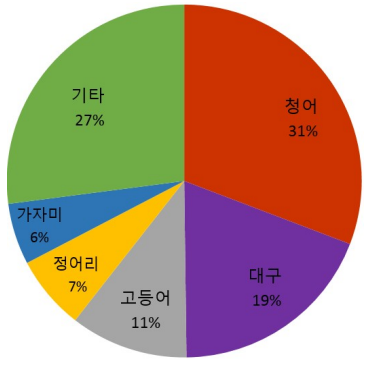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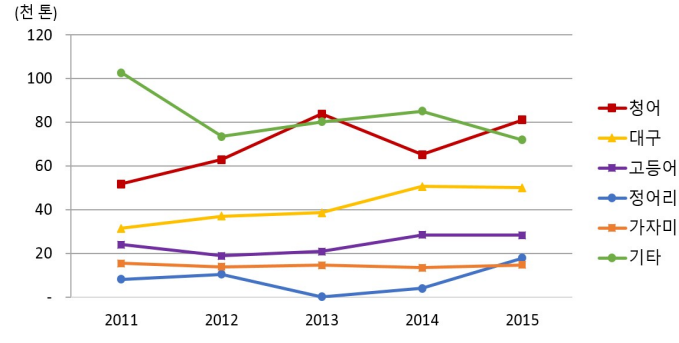
(어류) 청어, 대구, 고등어, 정어리, 가자미 중심의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며, 상위 5개 어종이 전체 생산량의 73%를 차지함

- 3년 평균 기준, 독일 수산물의 주요 어류 생산 어종은 청어로 69천 톤을 기록해 어류 전체 생산량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42천 톤), 고등어(24천 톤), 정어리(8천 톤), 가자미(약 14천 톤) 등의 순임
- 상위 5개 어종이 어류 전체 생산량의 73%를 차지해 총 생산량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청어, 대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독일 어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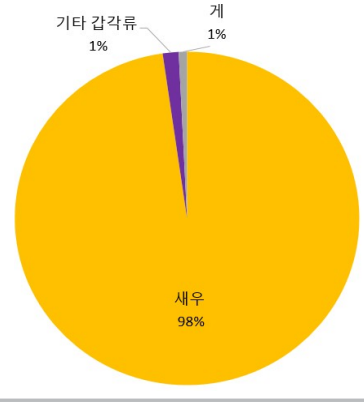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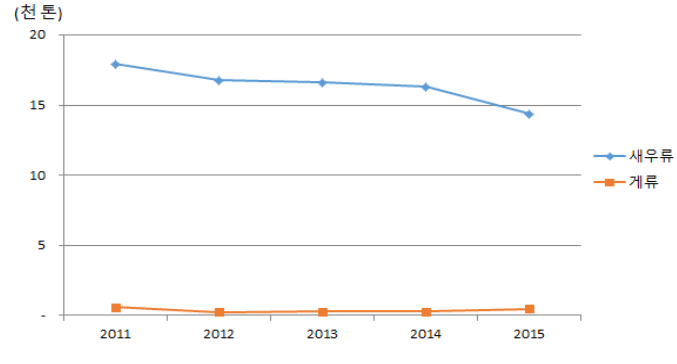
(갑각류) 새우, 게, 가재 중심의 갑각류와 생산이 주로 이루어짐

- 3년 평균 기준, 독일 주요 갑각류 생산 어종은 새우로 16천 톤을 기록해 갑각류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량의 게(130톤)가 생산됨
- 그러나 갑각류 중 최대 생산 품목인 새우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1-6〉 독일 갑각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영국 수산물 생산 동향

1) 영국 수산물 시장 개요

영국 수산물 생산, 유럽 내 제2위 수산물 생산국으로 어선어업 중심의 구조

- 영국은 EU 28개국 가운데,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국가임(EUROSTAT 2016년 연례 보고서)
-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주로 어선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수산물의 약 75%가 수출용(연어, 고등어, 바다가재)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영국의 양식어업은 유럽 내 대표 양식 강대국인 노르웨이와 스페인에 이어 3번째에 위치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한 이유는 1차 산업의 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산가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수산물 양식 산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임

〈표 1-6〉 영국 수산물 자국 및 수입 공급 비중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수산물 생산량 (천 톤)	전체	836	970	912
	어선어업	632	756	705
	양식어업	203	215	207
부류별		2013년	2014년	2015년
어류		635	802	747
갑각류		111	91	94
패류		64	69	61
두족류		7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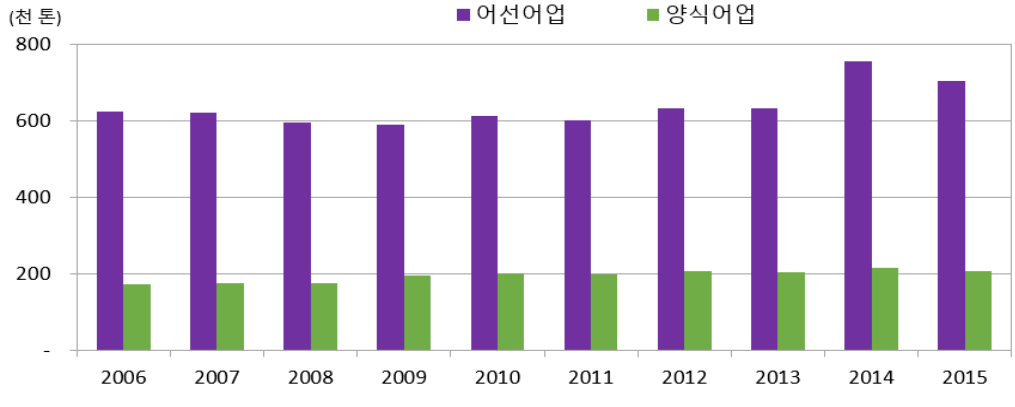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2015년 영국 수산물 생산량은 912천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5%의 증가세를 보임

- 영국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5% 증가해 2015년 기준 912천 톤을 기록함
- 어업별로는 어선어업 생산량이 705천 톤(전체 생산량의 77%), 양식어업은 23천 톤(전체 생산량의 23%)으로 영국 수산물 생산은 어선어업 생산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1-7〉 영국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주 : 1) FAO 생산 통계 자료의 EU 28개국 기준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2) 어업별 생산 동향

2015년 영국 어선어업 생산량은 705천여 톤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영국 수산물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600천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700천 톤 가량을 기록함
- 류별로는 약 80%가 어류로 고등어, 대구, 청어, 가자미, 아귀 등이 생산되고 있음
- 패류와 갑각류는 최근 생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두족류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표 1-8〉 영국 어선어업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601	632	632	756	705	698	100.0
1	어류	448	469	476	609	562	549	78.7
2	패류	80	82	85	70	72	76	10.8
3	갑각류	68	69	64	69	61	65	9.3
4	두족류	5	11	7	7	10	8	1.2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연어, 송어 등의 어류와 홍합 등의 패류가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되며, 2000년대 이후 양식어업 생산량은 조금씩 증대됨

- 양식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2년 이후에는 200천 톤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양식 품목은 연어로 전체 양식어업 생산량의 83%를 차지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생산됨
- 패류 양식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23천 톤 대를 유지함

〈표 1-9〉 영국 양식어업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199	206	203	215	207	208	100.0
1	어류	172	178	177	193	185	185	88.9
2	패류	27	27	26	22	22	23	11.1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3) 류별 · 품목별 생산 동향

부류별로는 어류가 전체 생산의 81%로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영국의 수산물 생산은 어류가 734천 톤(81.0%)으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패류 99천 톤(10.9%), 갑각류 65천 톤(7.2%), 두족류 8(0.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영국 수산물 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의 생산량 모두 예년 평균 수준으로 전체 생산량은 900천 톤을 유지함

〈표 1-10〉 영국 류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비중
전체		800	837	836	970	912	906	100.0
1	어류	620	647	653	802	747	734	81.0
2	패류	108	110	111	91	94	99	10.9
3	갑각류	68	69	64	69	61	65	7.2
4	두족류	5	11	7	7	10	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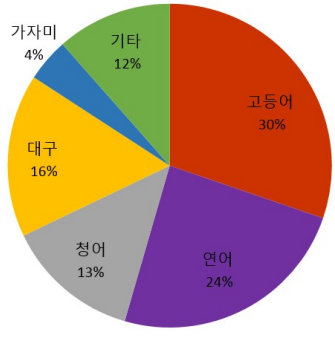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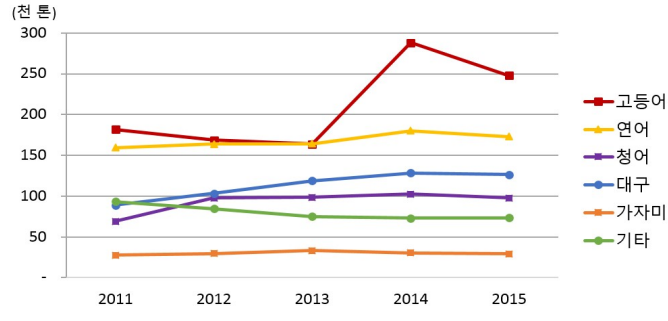
(어류) 고등어, 연어, 청어, 대구를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상위 5개 어종이 전체 생산량의 89%를 차지함

- 영국의 주요 어류 생산 품목은 고등어로 210천 톤을 기록해 어류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어(168천 톤), 대구(113천 톤), 청어(93천 톤) 등의 순임
- 상위 5개 어종이 어류 전체 생산량의 88.5%를 차지해 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14년까지 모든 어종의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5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영국 어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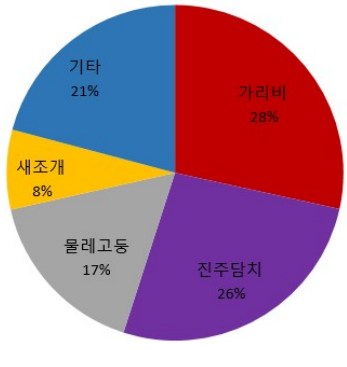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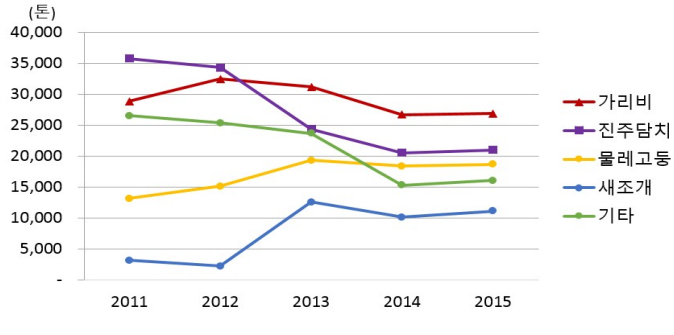
(패류) 가리비, 진주담치, 물레고둥 중심의 패류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며, 전체 생산량의 72%를 차지함

- 주요 패류 생산 품목은 가리비로 28천 톤을 기록해 패류 전체 생산량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주담치(22천 톤), 물레고둥(19천 톤), 새조개(11천 톤)으로 상위 4개 어종이 약 81%를 차지함
- 2011년 이후 물레고둥과 새조개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생산 품목인 가리비, 진주담치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총 패류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9〉 영국 패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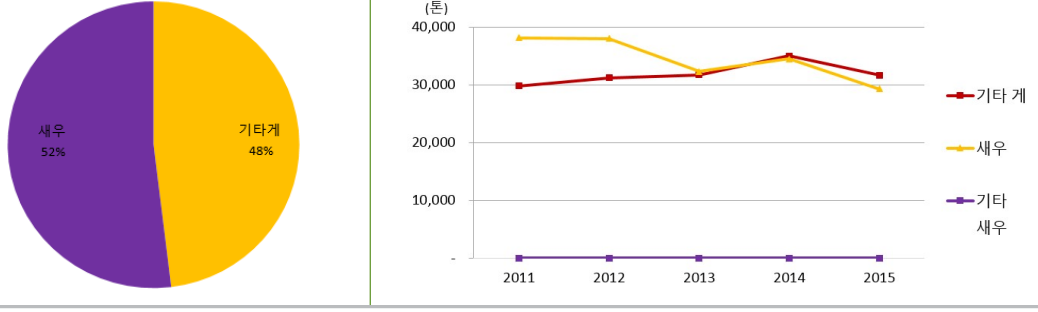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갑각류) 게, 새우류를 중심으로 연간 60천 톤 수준을 유지함

- 주요 생산 품목은 새우로 34천 톤을 기록해 갑각류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게(32천 톤), 기타새우(21톤)의 순으로 생산됨
- 갑각류는 2011년 이후 큰 폭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범위에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새우의 경우 2011년 38천 톤에서 2015년 29천 톤으로 약 23%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0〉 영국 갑각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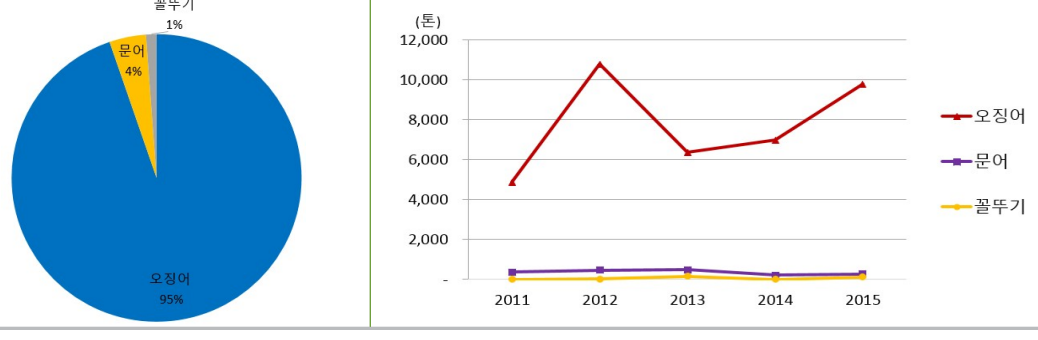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두족류) 오징어 중심를 중심으로 생산되며, 연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편임

- 주요 두족류 생산 품목은 오징어로 8천 톤을 기록해 두족류 전체 생산량의 96%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어(333톤), 꼴뚜기(96톤)의 순으로 생산됨
- 영국의 오징어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연간 4천~1만 톤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연도별 편차가 큰 편임

〈그림 1-11〉 영국 두족류 생산 동향

주요 생산 어종('13~'15년 평균)	어종별 생산 추이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K-Fish Information Center

CHAPTER / 2

EU 수산물 교역 동향

제 1 절 EU 수산물 교역 개황

제 2 절 독일 수산물 수출입 동향

제 3 절 영국 수산물 수출입 동향



EU 수산물 교역 동향

EU 수산물 교역 개황

EU는 수입중심형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EU 국가들 간의 교역 비중이 높은편이나,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리고 있음

- 수출액은 290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 38.2%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 수입액은 468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 61.8%를 차지하며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늘려가고 있음
-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EU의 수산물 교역액은 2015년 10.8%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치 불안정 및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표 2-1〉 EU 수산물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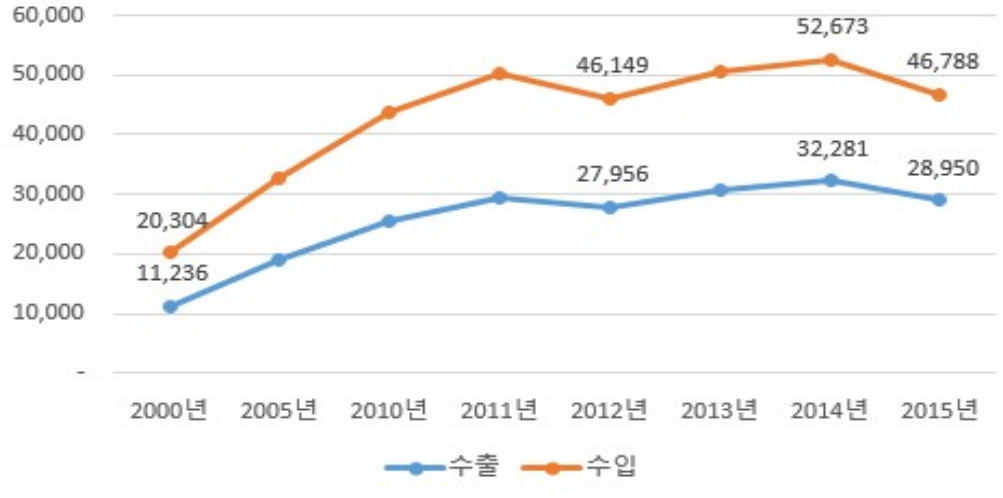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전체 교역	물량	34,159	41,431	46,203	48,089	36,982	46,266	39,976	41,534	1.3
	금액	31,540	51,632	69,174	79,903	74,105	81,297	84,955	75,737	6.0
수출	물량	14,026	18,349	18,905	17,535	15,412	19,658	18,677	19,784	2.3
	금액	11,236	18,914	25,407	29,507	27,956	30,831	32,281	28,950	6.5
수입	물량	20,134	23,082	27,298	30,555	21,570	26,608	21,300	21,750	0.5
	금액	20,304	32,718	43,768	50,396	46,149	50,466	52,673	46,788	5.7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그림 2-1〉 EU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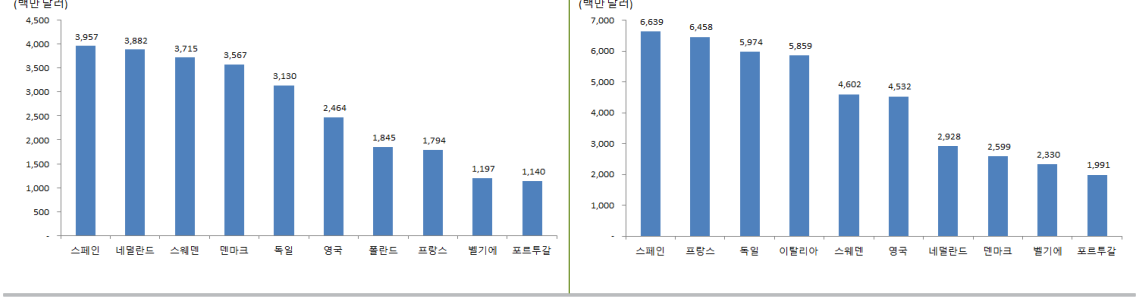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EU는 수산물 교역에 있어 수입 중심형 구조를 지니고 있음

- EU의 수산물 수출액은 40억 달러, 수입액은 66억 달러 가량으로, 수입 중심형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상위 수산물 수출국은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순이며, 상위 수산물 수입국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순임

〈그림 2-2〉 EU 상위 10개 수출국과 수입국(2013~2015년 평균)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최근 3년, EU의 수산물 교역량은 426만 톤, 교역액은 806억 달러임

- 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이 약 10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독일(11.3%), 스웨덴(10.3%), 프랑스(10.2%), 영국(8.7%)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 독일과 영국은 유럽의 제2, 5위 교역국으로, 2015년 교역액은 각각 91억 달러, 70억 달러를 기록함

〈표 2-2〉 유럽 상위 10대 수산물 교역국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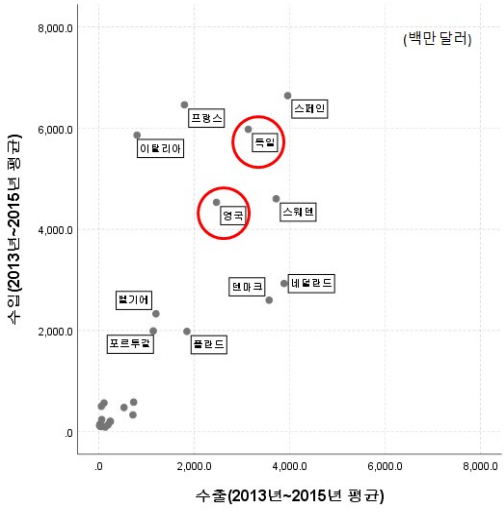
국가별		수산물 교역(2013~2015년 평균)			
		교역량		교역액	
		(천 톤)	비중(%)	(백만 달러)	비중(%)
EU 전체		42,592	100.0%	80,663	100.0%
1	스페인	4,062	9.5%	10,597	13.1%
2	독일	7,387	17.3%	9,104	11.3%
3	스웨덴	2,295	5.4%	8,316	10.3%
4	프랑스	2,401	5.6%	8,253	10.2%
5	영국	2,313	5.4%	6,996	8.7%
6	네덜란드	6,691	15.7%	6,810	8.4%
7	이탈리아	2,555	6.0%	6,659	8.3%
8	덴마크	2,805	6.6%	6,166	7.6%
9	폴란드	1,898	4.5%	3,827	4.7%
10	벨기에	2,237	5.3%	3,527	4.4%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독일과 영국은 EU의 상위 수산물 교역국으로, 두 국가 모두 수산물 수입수요가 높음

- 독일과 영국은 EU의 제 2, 5위 수산물 교역국으로 EU내 차지하는 위상이 높음
- 특히 두 국가 모두 수산물 수입 중심형 국가로, 독일은 약 60억 달러, 영국은 약 45억 달러 가량을 수입하고 있음

〈그림 2-3〉 EU 국가별 교역 현황(2013~2015년 평균)



국가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입액 (백만 달러)
1	스페인	3,957	6,639
2	**독일**	**3,130**	**5,974**
3	스웨덴	3,715	4,602
4	프랑스	1,794	6,458
5	**영국**	**2,464**	**4,532**
6	네덜란드	3,882	2,928
7	이탈리아	800	5,859
8	덴마크	3,567	2,599
9	폴란드	1,845	1,982
10	벨기에	1,197	2,330

주 : 상위 교역액(수출+수입)이 높은 국가 순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독일 수산물 수출입 동향

독일의 연간 수산물 교역 규모는 약 84억 달러로, 이 중 수입이 55억 달러 이상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함

-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29억 달러 이상으로 2011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감소함
- 수산물 수입은 연평균 6.3%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4년에는 6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5년에는 수입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독일 수산물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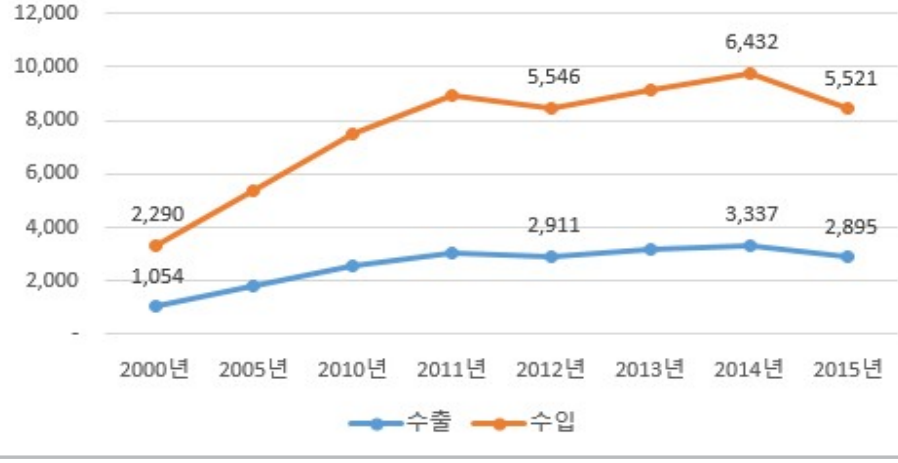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전체 교역	물량	6,454	8,318	7,697	8,184	6,586	7,084	7,396	7,681	1.2
	금액	3,344	5,369	7,475	8,896	8,457	9,129	9,768	8,416	6.3
수출	물량	3,281	4,491	3,823	3,485	3,014	3,462	3,642	3,947	1.2
	금액	1,054	1,830	2,568	3,037	2,911	3,157	3,337	2,895	7.0
수입	물량	3,172	3,827	3,875	4,699	3,572	3,622	3,754	3,734	1.1
	금액	2,290	3,539	4,907	5,859	5,546	5,971	6,432	5,521	6.0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그림 2-4〉 독일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1) 수출 동향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 프랑스 · 영국 · 오스트리아 등으로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53.4%, 10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6.9%를 차지함
- 한국은 독일의 제50위 수출대상국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0.06%를 차지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국가별 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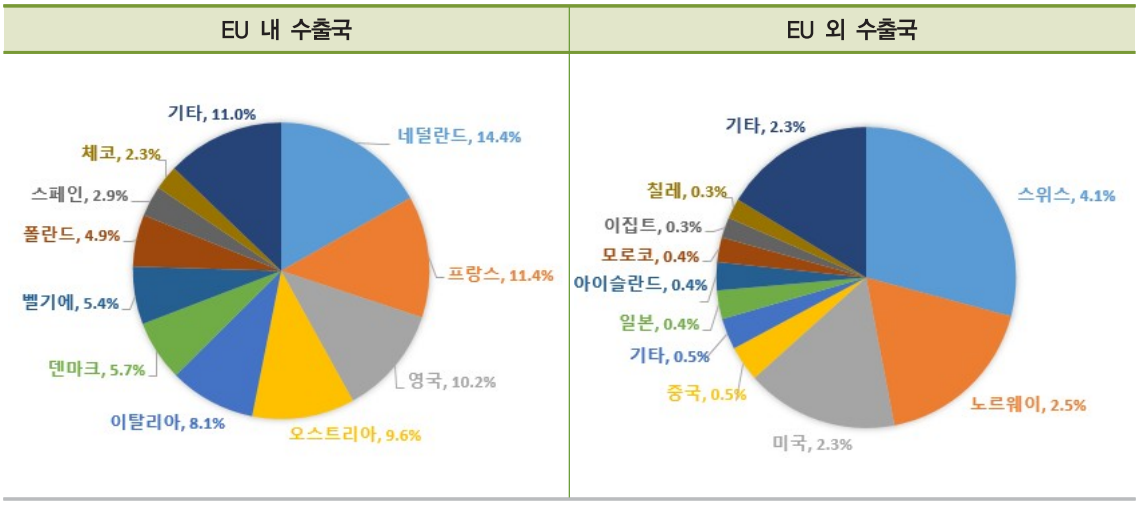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출액	비중
전체		3,157	3,337	2,895	3,130	100.0
1	네덜란드	474	477	417	456	14.6
2	프랑스	360	357	330	349	11.2
3	영국	317	346	295	320	10.2
4	오스트리아	300	321	278	300	9.6
5	이탈리아	234	269	234	246	7.9
6	덴마크	224	205	164	198	6.3
7	벨기에	147	172	156	158	5.1
8	폴란드	203	179	141	174	5.6
9	스위스	121	114	120	118	3.8
10	스페인	88	97	83	89	2.9
...						
50	한국	2	3	1	2	0.06
상위 5개국		1,686	1,771	1,555	1,670	53.4
상위 10개국		2,469	2,537	2,219	2,408	76.9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EU 내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 독일의 對EU 수출 비중은 2015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85.8%를 차지함

- 완화된 규제와 관세 등으로 인해 독일의 수산물 수출은 EU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EU 내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5.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독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2015년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4.4%이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11.4%), 영국(10.2%), 오스트리아(9.6%) 등의 순임
- EU 외 국가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4.2%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스위스(4.1%), 노르웨이(2.5%), 미국(2.3%) 등의 순으로, 유럽 국가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림 2-5〉 독일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5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연어, 어분, 대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연어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3년 평균 기준 연어 수입액은 5.6억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고, 주로 프랑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 수출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어분 수출이 2.9억 달러로 많고, 대구(2.8억), 새우(2.4억), 소금(2.1억) 순임

〈표 2-5〉 독일의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별		3년 평균		주요 수출국(수출국 비중)
		수출액	비중	상위 3개 수출국
전체		3,130	100.0	
1	연어	555	17.7	프랑스(15.3%), 네덜란드(13.2%), 오스트리아(13.2%)
2	어분	287	9.2	노르웨이(38.4%), 덴마크(13.3%), 그리스(10.0%)
3	대구	282	9.0	이탈리아(20.0%), 영국(15.8%), 포르투갈(14.0%)
4	새우	236	7.5	네덜란드(29.5%), 오스트리아(17.7%), 프랑스(10.4)
5	소금	210	6.7	체코(12.0%), 벨기에(11.7%), 이탈리아(9.4%)
6	청어	134	4.3	폴란드(28.9%), 네덜란드(22.7%), 오스트리아(10.2%)
7	명태	105	3.3	프랑스(30.2%), 폴란드(16.1%), 오스트리아(8.8%)
8	다랑어	78	2.5	오스트리아(24.4%), 벨기에(15.8%), 네덜란드(13.8%)
9	고등어	69	2.2	네덜란드(38.3%), 덴마크(18.2%), 영국(9.9%)
10	넙치	44	1.4	중국(16.6%), 일본(15.5%), 아이슬란드(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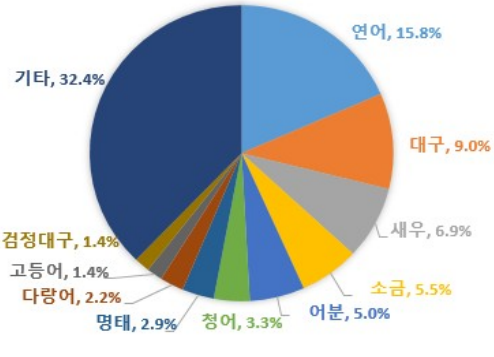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EU 내 국가로는 연어 · 대구 · 새우 등, EU 외 국가로는 연어 · 어분 · 소금 등을 수출함

- 독일은 EU 내 국가로 주루 연어(15.8%), 대구(9.0%), 새우(6.9%) 등을 수출하고 있음
- EU 외 국가로는 연어(3.2%), 어분(2.6%), 소금(1.6%)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독일의 국가별 품목별 수산물 수출입 비중(2015년)

EU 내 수출국



EU 외 수출국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2) 수입 동향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등으로,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70.0%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독일의 수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14.2%가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까지는 꾸준히 수입이 늘었음
- 국가별로는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이 약 9.4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6.9억 달러), 노르웨이(5.8억 달러) 등의 순임
- 상위 5개국으로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53.2%,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70.0%를 차지하고 있음
- 對한국 수입은 약 4백만 달러로, 한국은 독일 전체 수입액의 0.07%를 차지함

〈표 2-6〉 국가별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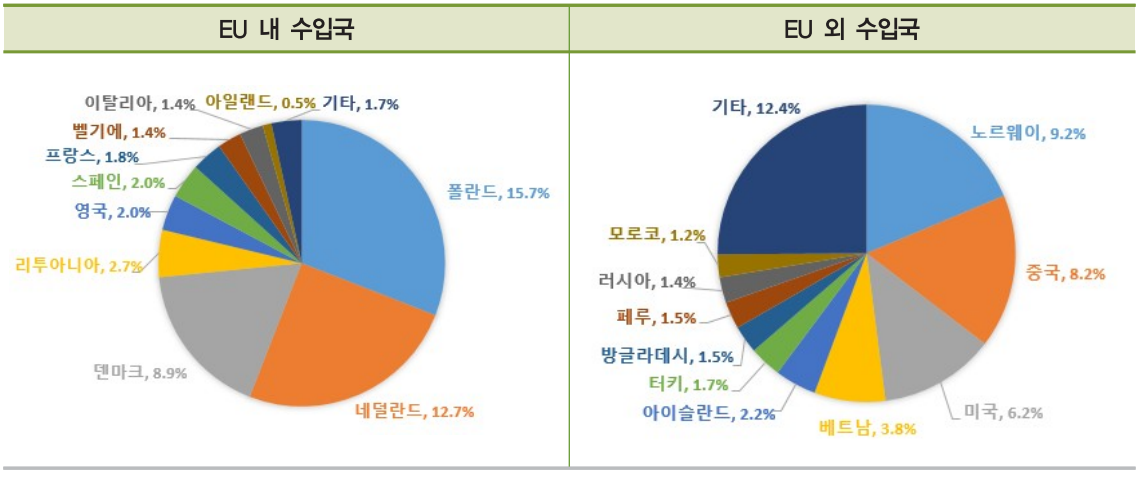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5,971	6,432	5,521	5,974	100.0
1	폴란드	956	1,001	866	941	15.7
2	네덜란드	636	725	700	687	11.5
3	노르웨이	575	650	508	578	9.7
4	덴마크	463	536	490	497	8.3
5	중국	494	488	455	479	8.0
6	미국	356	369	341	355	5.9
7	베트남	210	239	210	220	3.7
8	페루	150	234	80	154	2.6
9	리투아니아	103	155	149	136	2.3
10	영국	146	148	113	136	2.3
…						
49	한국	4	4	5	4	0.07
상위 5개국		3,124	3,399	3,020	3,181	53.2
상위 10개국		4,089	4,544	3,913	4,182	70.0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국가별 수입 비중은 EU 내 수입국으로부터 50.7%, EU 외 수입국으로부터는 49.3%를 수입함

- 독일의 수산물 수출은 주로 EU 내 국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입은 EU 내 국가 50.7%, EU 외 국가 49.3%로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음
- EU 내 수입국으로는 폴란드(15.7%)와 네덜란드(12.7%)에 이어, 덴마크(8.9%), 리투아니아(2.7%)가 독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남
- EU 외 국가로는 노르웨이(9.2%), 중국(8.2%), 미국(6.2%), 베트남(3.8%)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그림 2-7〉 독일의 국가별 수입 비중(2015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독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연어, 새우, 명태임

- 주요 상위 수입품목은 연어(14.8억 달러), 새우(6.5억 달러), 명태(5.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5.2%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다랑어의 경우 4번째로 높은 수입액(3.9억 달러)을 기록하고 있으며, 넙치는 0.7억 달러 가량을 수입해 10번째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독일의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별		3년 평균		주요 수입국(수입국 비중)
		수입	비중	상위 3개 수입국
전체		5,974	100.0	
1	연어	1,484	24.8	폴란드(34.4%), 노르웨이(26.0%), 덴마크(11.0%)
2	새우	654	10.9	베트남(17.6%), 네덜란드(16.5%), 방글라데시(13.0%)
3	명태	566	9.5	미국(44.7%), 중국(43.9%), 러시아(7.7%)
4	다랑어	394	6.6	에콰도르(18.2%), 필리핀(14.5%), 네덜란드(13.5%)
5	대구	372	6.2	노르웨이(29.1%), 중국(18.0%), 폴란드(13.2%)
6	어분	251	4.2	페루(51.3%), 모로코(10.9%), 덴마크(9.0%)
7	청어	222	3.7	폴란드(39.2%), 덴마크(23.7%), 네덜란드(10.5%)
8	송어	205	3.4	폴란드(27.4%), 덴마크(22.1%), 터키(18.5%)
9	소금	177	3.0	네덜란드(66.5%), 폴란드(6.7%), 프랑스(4.3%)
10	넙치	74	1.2	네덜란드(38.0%), 덴마크(21.4%), 중국(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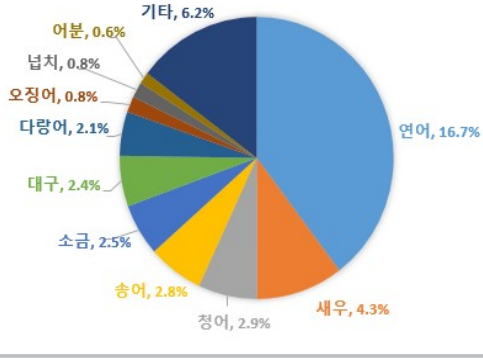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독일은 EU 내 국가로부터 연어 · 새우 · 청어 등, EU 외 국가로부터 명태 · 연어 · 새우 등을 수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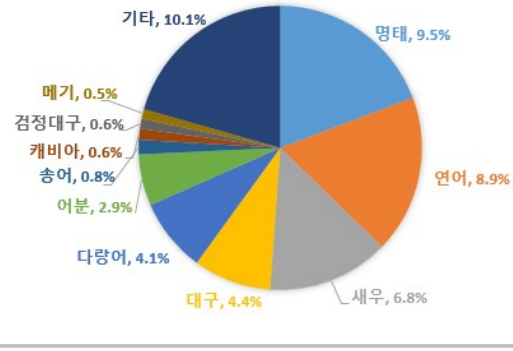
- 독일은 EU 내 국가로부터 주로 연어(16.7%), 새우(4.3%), 청어(2.9%) 등을 수입함
- EU 외 국가로는 명태의 수입 비중이 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어(8.9%), 새우(6.8%) 등의 순임

〈그림 2-8〉 영국의 국가별 품목별 수산물 수입 비중(2015년)

EU 내 수입국



EU 외 수입국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다랑어 · 캐비아 · 명태 · 해조류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다랑어와 캐비아의 수입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수입액의 각각 35.7%, 29.8%를 차지해 가장 높음
- 명태의 경우 2013년 수입액이 122만 달러로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이었으나, 한국에서 명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14년부터는 수입이 급속히 감소함
- 이외에, 독일은 김, 미역, 다시마 등을 포함한 해조류, 굴, 소금 등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

〈표 2-8〉 독일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2015년)

단위 : 천 달러, %

국가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4,124	4,056	4,580	4,254	100.0
1	다랑어	793	1,731	2,030	1,518	35.7
2	캐비아	1,231	1,222	1,355	1,269	29.8
3	명태	1,221	4	1	409	9.6
4	해조류	371	381	318	357	8.4
5	굴	68	113	211	131	3.1
6	소금	127	61	84	90	2.1
7	오징어	25	40	49	38	0.9
8	새우	12	14	2	9	0.2
9	고등어	12	4	5	7	0.2
10	한천	–	3	4	2	0.1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 수산물 수출입 동향

영국의 연간 교역액은 70억 달러 가량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2013년~2015년 평균)

- 영국은 수산물 수출액이 25억 달러, 수입액은 45억 달러로 수입 중심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최근 3년)
- 2000년 이후 전체 교역액은 연평균 4.3%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 2015년은 정치 불안정과 환율 변동으로 교역액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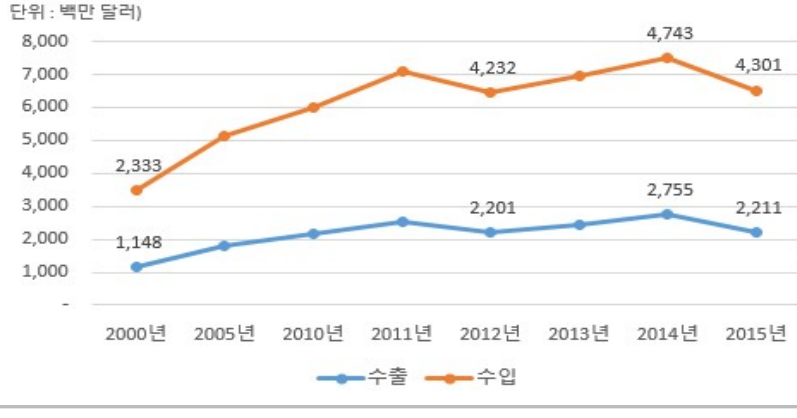
〈표 2-9〉 영국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전체 교역	물량	1,783	2,263	3,118	3,672	2,086	2,580	2,126	2,232	1.5
	금액	3,481	5,111	6,008	7,091	6,433	6,977	7,497	6,512	4.3
수출	물량	693	1,086	1,020	978	875	995	950	870	1.5
	금액	1,148	1,782	2,158	2,512	2,201	2,426	2,755	2,211	4.5
수입	물량	1,089	1,177	2,097	2,695	1,210	1,585	1,176	1,362	1.5
	금액	2,333	3,329	3,850	4,579	4,232	4,551	4,743	4,301	4.2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그림 2-9〉 영국 수산물 교역 추이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1) 수출 동향

영국의 수산물 수출은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2.3%를 차지함

- 영국의 상위 5개 수출국은 프랑스(5.7억 달러), 미국(3.5억 달러), 아일랜드(2.6억 달러), 스페인(2.1억 달러), 이탈리아(1.4억 달러)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 미국을 제외하면 지리적인 가까운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은 영국의 제14위 수출대상국으로 영국의 對한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함

〈표 2-10〉 영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 동향(2013년 ~ 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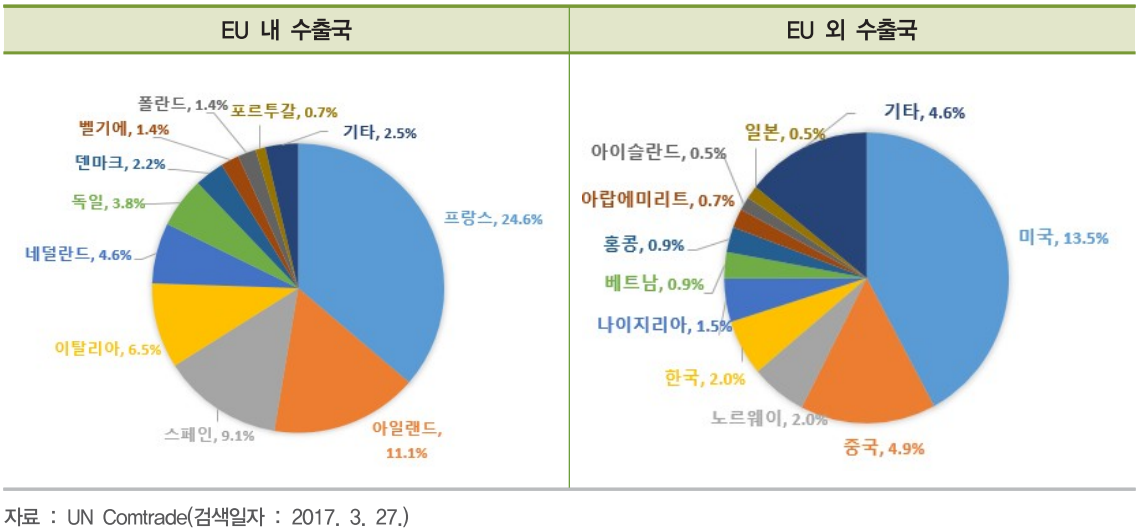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출액	비중
전체		2,426	2,755	2,211	2,464	100.0
1	프랑스	558	615	545	573	23.2
2	미국	340	404	299	348	14.1
3	아일랜드	251	286	245	260	10.6
4	스페인	192	239	201	211	8.5
5	이탈리아	138	151	143	144	5.8
6	중국	109	173	109	130	5.3
7	네덜란드	111	126	102	113	4.6
8	독일	114	109	85	103	4.2
9	덴마크	31	46	49	42	1.7
10	노르웨이	33	44	45	40	1.6
…						
14	한국	33	41	44	39	1.6
상위 5개국		1,478	1,695	1,433	1,535	62.3
상위 10개국		1,876	2,192	1,823	1,964	79.7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의 수산물 수출은 주로 프랑스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EU 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외 국가로의 수출도 전체 수출의 32.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임

- 영국은 143개국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약 22억 달러를 수출함
- EU 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일랜드(11.1%), 스페인(9.1%) 등의 순임
- EU 외 국가로의 수출은 미국(13.5%), 중국(4.9%), 노르웨이(2.0%) 등으로 EU 외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그림 2-10〉 영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5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어 · 바닷가재 · 가리비 · 고등어 등으로, 연어가 전체 수출액의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어는 영국의 스코틀랜들르 중심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으로 전체 수출 중 3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프랑스와 중국 등 상대적으로 EU 외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연어 외의 수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63%를 차지하여 바닷가재(8.7%), 가리비(6.2%), 고등어(5.8%)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표 2-11〉 영국의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별		3년 평균		주요 수출국(수출국 비중)
		수출액	비중	상위 3개 수출국
전체		2,464	100.0	프랑스(23.2%), 미국(14.1%), 아일랜드(10.6%)
1	연어	913	37.0	미국(35.8%), 프랑스(21.4%), 중국(10.5%)
2	바닷가재	215	8.7	프랑스(35.3%), 스페인(26.3%), 이탈리아(19.8%)
3	가리비	152	6.2	프랑스(60.1%), 이탈리아(19.2%), 스페인(10.3%)
4	고등어	142	5.8	네덜란드(17.3%), 나이지리아(13.8%), 러시아(11.8%)
5	새우	132	5.4	아일랜드(20.1%), 독일(18.6%), 프랑스(14.1%)
6	대구	114	4.6	프랑스(44.2%), 아일랜드(18.1%), 독일(11.7%)
7	게	82	3.3	프랑스(39.5%), 스페인(29.3%), 중국(8.8%)
8	어분	68	2.7	아일랜드(46.1%), 노르웨이(42.8%), 아이슬란드(3.9%)
9	소금	64	2.6	아일랜드(31.7%), 프랑스(6.6%), 네덜란드(5.0%)
10	청어	57	2.3	네덜란드(23.8%), 독일(18.5%), 나이지리아(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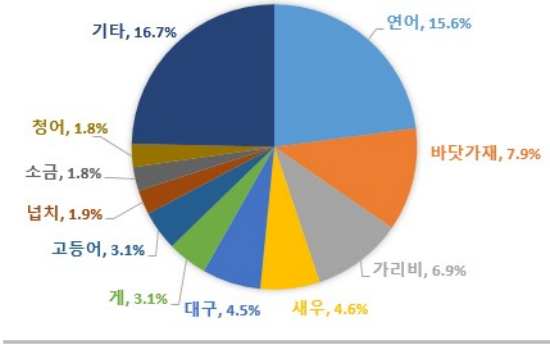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은 EU 내 국가로 연어 · 바닷가재 · 가리비 등, EU 외 국가로 연어 · 어분 · 고등어 등을 수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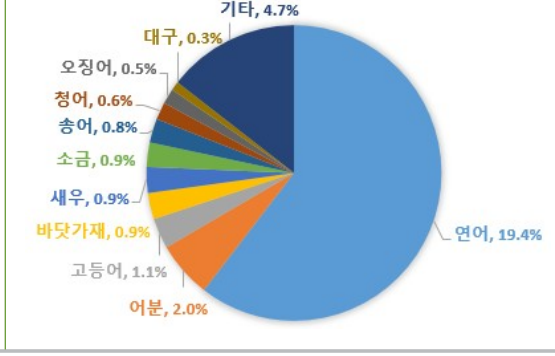
• 영국은 EU 내 국가로부터 연어(15.6%), 바닷가재(7.9%), 가리비(6.9%), 새우(4.6%) 등을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EU 외 국가로는 연어(19.4%), 어분(2.0%), 고등어(1.1%), 바닷가재(0.9%) 등의 순으로 수출하고 있음

〈그림 2-11〉 영국의 국가별 품목별 수산물 수출입 비중(2015년)

EU 내 수출국



EU 외 수출국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2) 수입 동향

영국의 주요 수입국가는 아이슬란드, 독일, 중국 등의 순임

- 영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아이슬란드로 연평균 수입액은 약 4억 달러이며, 그 다음은 독일(3억 달러), 중국(3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위 5개국으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5.4%,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3%로 수산물 수출보다 수입은 더 다변화되어 있는 구조임
- 對한국 수입은 약 7백만 달러(전체 수입액의 0.15%)로 한국산 수산물이 영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임

〈표 2-12〉 국가별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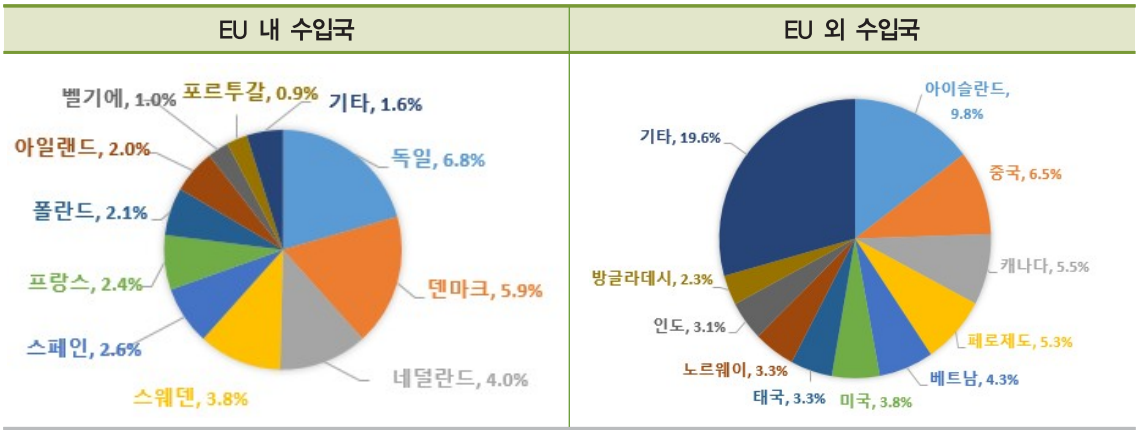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4,551	4,743	4,301	4,532	100.0
1	아이슬란드	422	433	422	425	9.4
2	독일	305	313	294	304	6.7
3	중국	298	328	281	302	6.7
4	페로제도	331	314	226	291	6.4
5	덴마크	296	290	254	280	6.2
6	태국	297	205	143	215	4.7
7	캐나다	136	199	236	191	4.2
8	스웨덴	166	179	162	169	3.7
9	미국	157	185	163	169	3.7
10	베트남	126	168	187	160	3.5
…						
44	한국	11	8	3	7	0.15
상위 5개국		1,651	1,678	1,477	1,602	35.4
상위 10개국		2,533	2,615	2,368	2,505	55.3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의 주요 EU 내 수산물 수입대상국은 독일 · 덴마크 · 네덜란드 등, EU 외 주요 수입대상국은 아이슬란드 · 중국 · 캐나다 등으로, EU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66.8%를 차지함

- 수출은 EU 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국의 수산물 수입은 주요 EU 외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EU 외 국가로의 수입 비중은 66.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영국의 EU 내 주요 수입국은, 수입 비중 기준으로 독일(6.8%), 덴마크(5.9%)와 네덜란드(4.0%) 등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33.2%를 차지함
- EU 외 국가로는 아이슬란드(9.8%)와 중국(6.5%)에 이어, 캐나다(5.5%)와 페로제도(5.3%) 등은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남

〈그림 2-12〉 영국 수산물 교역 추이(2015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주요 수입 품목은 새우 · 대구 · 연어 · 다랑어로, 이들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60%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영국의 상위 4개 수입 품목은 새우, 대구, 연어와 다랑어 등 품목으로,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62.6%를 차지함
- 영국의 최대 수입 품목인 새우는 전체 수입액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입 금액은 9억 달러 이상으로 주요 캐나다, 태국과 인도 등 국가로부터 수입함
- 새우 외의 품목의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구(14.8%), 연어(14.6%)와 다랑어(13.1%)의 수입 비중도 전체 수입액의 10% 이상을 차지함
- 이외, 영국은 해덕, 어분, 명태, 소금 등 수산물도 수입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은 높지 않음

〈표 2-13〉 영국의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별		3년 평균		주요 수입국(수입국 비중)
		수입액	비중	상위 3개 수입국
전체		4,532	100.0	
1	새우	912	20.1	캐나다(15.3%), 태국(12.9%), 인도(12.9%)
2	대구	673	14.8	아이슬란드(40.1%), 중국(15.8%), 노르웨이(8.6%)
3	연어	663	14.6	페로제도(34.0%), 스웨덴(22.5%), 미국(14.0%)
4	다랑어	594	13.1	모리셔스(17.5%), 세이셸(16.9%), 가나(13.1%)
5	해덕	185	4.1	아이슬란드(26.5%), 노르웨이(19.9%), 중국(14.4%)
6	어분	118	2.6	덴마크(17.7%), 아일랜드(17.6%), 노르웨이(16.2%)
7	명태	104	2.3	중국(47.6%), 미국(19.3%), 독일(10.9%)
8	소금	74	1.6	벨기에(19.2%), 스페인(17.9%), 독일(15.9%)
9	고등어	69	1.5	덴마크(60.9%), 아일랜드(9.1%), 포르투갈(7.5%)
10	바닷가재	61	1.3	케나다(29.4%), 미국(24.5%), 아일랜드(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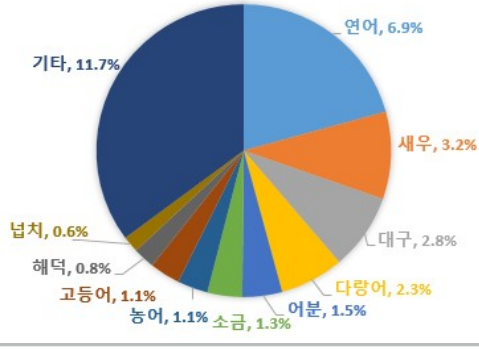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주요 품목인 새우 · 대구 · 다랑어 등은 EU 외 국가로부터 수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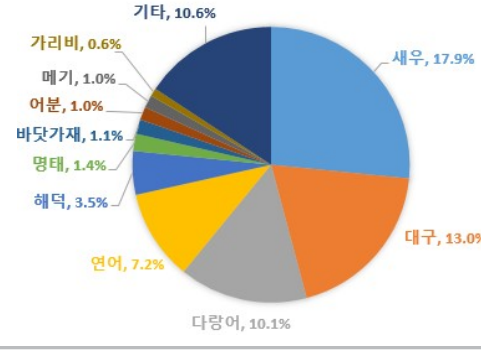
- 영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새우(17.9%), 대구(13.0%), 다랑어(10.1%) 등은 주로 EU 외 국가로부터 수입함
- 한편, EU 내 국가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연어로 전체 수입액의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새우(3.2%), 대구(2.8%), 다랑어(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영국의 국가별 품목별 수산물 수입 비중(2015년)

EU 내 수입국



EU 외 수입국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영국의 對한국 수입은 다랑어 · 굴 · 해조류에 집중되어 있음

- 영국의 對한국 수산물 수입은 3년 평균 730만 달러 가량 되나, 최근 수입 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요 수입 품목인 다랑어의 수입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2015년 對한국 다랑어 수입이 전년대비 95% 이상 감소함
- 다랑어 외에는 굴과 해조류가 각각 전체 수입액의 11.9%(87만 달러), 10.3%(75만 달러)를 차지해 제2, 3위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표 2-14〉 영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

국가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10,656	7,923	3,275	7,285	100.0
1	다랑어	7,997	5,003	224	4,408	60.5
2	굴	812	969	818	866	11.9
3	해조류	433	789	1,036	753	10.3
4	홍합	–	80	330	136	1.9
5	오징어	113	48	107	89	1.2
6	게	98	54	104	85	1.2
7	대구	6	226	–	77	1.1
8	이빨고기	213	–	–	71	1.0
9	캐비아	105	5	23	45	0.6
10	관상어	56	–	–	19	0.3

자료 : UN Comtrade(검색일자 : 2017. 3. 27.)

K-Fish Information Center

CHAPTER / 3

EU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동향

제 1 절 독일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동향

제 2 절 영국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동향

제 3 절 수산물 시장 인증 동향



EU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동향

독일 수산물 유통 동향

1) 독일의 식품 유통 동향

독일에서 식품 구매는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짐

-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독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짐
- 2015년 기준 독일 온라인을 통한 식품 매출액은 150억 유로로 전체 식품 매출액의 11%에 불과하고, 구매 소비자 비율도 1%임

독일은 물류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수산물 유통에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의 물류산업 생산액이 2,300억 유로로 제3위로 큰 산업임
- 독일에서 총 35개의 물류단지(Freight Village)가 있으며, 이러한 물류단지의 평균 규모는 14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독일 내 큰 범위의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있음. 물류단지 내 창고, 운송, 포장 등 기본적인 물류 서비스는 물론, 대부분 단지 내 세관, 금융과 보험 등의 기관, 차량 서비스센터, 주유소, 식당 등도 설치되어 있고, 인프라가 발달한 것으로 평가됨[3)]
- 2013년 기준으로, 독일 주요 항구와 물류단지의 인프라 연결 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철도는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으며, 하천이 많으므로 수상 운송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독일 주요 항구/물류단지의 물류 연결 현황

단위: 백만 유로

항구/물류단지	다른 물류와의 연결			
	고속도로	철도	수상	항공
Duisburger Hafen 항구	○	○	○	
Wilhelmshaven 항구	○	○	○	○
Bremen 물류단지	○	○	○	
Berlin Südkreuz 물류단지	○	○		
Leipzig 물류단지	○	○		○
Dresden 물류단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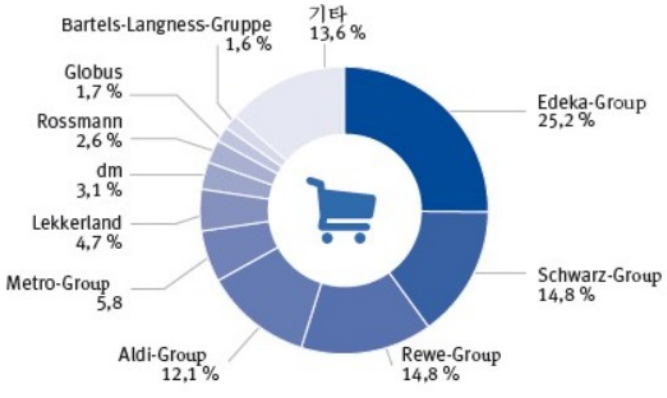
자료 :「德国物流组织化信息化应用技术培训考察报告」, 尉艳平, 2013.08

3)「德国物流组织化信息化应用技术培训考察报告」, 尉艳平, 2013.08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는 Edeka Group임

- 독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Edeka Group이며, 그 뒤를 이어 Schwarz Group, Rewe Group, Aldi Group, Metro Group 등으로 이들 기업이 전체 매출의 3/4을 차지함

〈그림 3-1〉 2014년 독일 대형 식품 유통업체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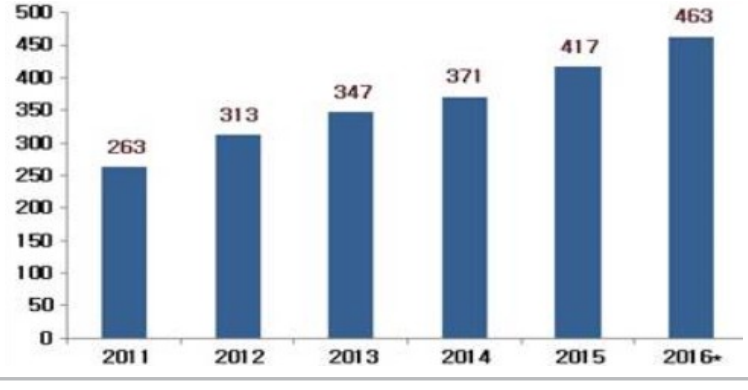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3200(검색일자 : 2017. 12. 15.)

식품 구매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화된 물류 기술 등으로 독일의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식품 구입은 주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많지만, 2016년 독일의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액은 463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그림 3-2〉 독일 온라인 유통시장의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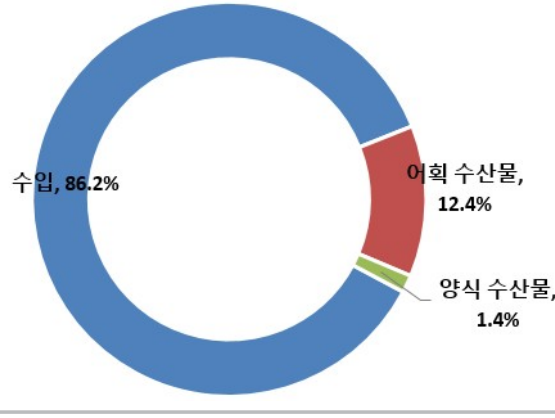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5475(검색일자 : 2017. 12. 15.)

2) 독일의 수산물 유통 동향

독일 수산물은 물류업체, 도매업체, 가공업체,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거쳐 유통됨

- 독일에서 수산물은 물류업체를 통해 도매 또는 가공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소매업자들에게 유통됨
-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대형마트, 식당, 수산전문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재래시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유통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 가량 되며, 그 다음으로 어획(12.4%)과 양식(1.4%)의 수산물 순임

〈그림 3-3〉 2016년 독일 수입 수산물과 자국산 수산물 유통 비중



자료 : 「2017年休水产品行业市场流通及消费现状调研分析报告」, 北京华经视点信息咨询有限公司, p57

〈그림 3-4〉 독일의 수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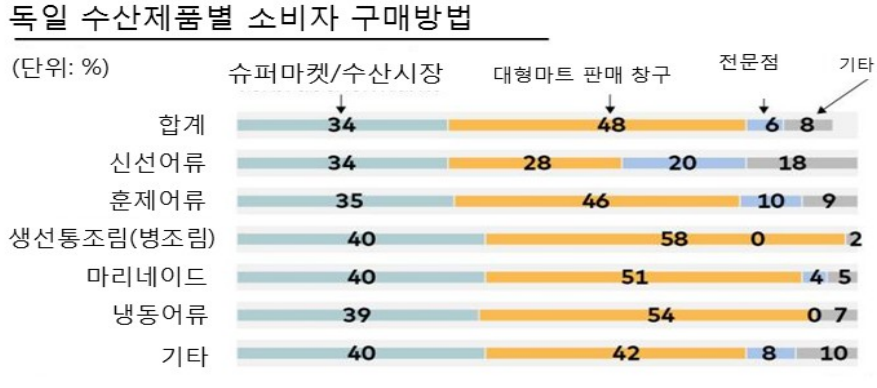


자료 : 「2017年休水产品行业市场流通及消费现状调研分析报告」, 北京华经视点信息咨询有限公司, p54

독일의 수산물 구매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수산제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높음. 냉동어류 및 생선통조림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각각 54%,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신선어류 역시 에데카(EDEKA), 카우프란트(KAUFLAND), 레베(REWE) 등 독일의 대형 마트에서 판매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신선어류의 경우 2015년부터 대형마트에서의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수산물 판매시장의 28%를 차지함
- 즉, 수산물 판매시장의 성장에는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창구 확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대형마트 판매 창구의 확대에, 소형 생선상점 시장점유율은 20%대로 하락세를 기록함

〈그림 3-5〉 독일 수산제품별 소비자 구매방법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GfK)
Die Deutschen haben einen neuen Lieblingsfisch, Die Welt(2016. 9. 8. 기준)

수산제품이 판매되는 주요 대형마트로는 에데카(EDEKA), 레베(REWE), 카우프란트(KAUFLAND), 리들(LIDL) 등이 있음

- 에데카(EDEKA)는 독일 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매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음
- 레베(REWE)는 프리미엄 식료품의 판매가 많은 매장이며, 다양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매장임. 예를 들면, 독일 전 지역 매장 내 카페, 스시바를 설치해 매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려 하고 있음
- 카우프란트(KAUFLAND)는 저가형 하이퍼 매장으로, 타 매장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지역 맞춤형 매장 운영을 통해 독일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리들(LIDL)은 고품질 PB상품 판매가 많은 매장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매장으로, 디스카운트 매장 중 독일 내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표 3-2〉 독일 주요 대형마트 현황

구분		내용
EDEKA	상호명	에데카(EDEKA)
	매출액	533억 유로(독일 내 1위, 2016년 기준) (전년대비 2.8% 증가)
	독일 내 매장 수	4,100개(2016년 기준)
	홈페이지	https://www.edeka.de/
REWE	상호명	레베(REWE)
	매출액	396억 유로(독일 내 2위, 2016년 기준) (전년대비 3.3% 증가)
	독일 내 매장 수	3,300개(2016년 기준)
	홈페이지	https://www.rewe.de/
LIDL Kaufland	상호명	슈바르츠-그룹(Schwarz-Gruppe) (리들&카우프란트; Lidl&Kaufland)
	매출액	345억 유로(독일 내 3위,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
	독일 내 매장 수	리들 3,200개 / 카우프란트 650개 (2016년 기준)
	홈페이지	https://www.lidl.de/ https://www.kaufland.de/

자료 : Nielsen-TradeDimensions
Das sind die größten Lebensmittel-Einzelhändler Deutschlands, Absatzwirtschaft(2016. 3. 22.)
Die 10 größten Supermarktketten Deutschlands, GeVester(2016.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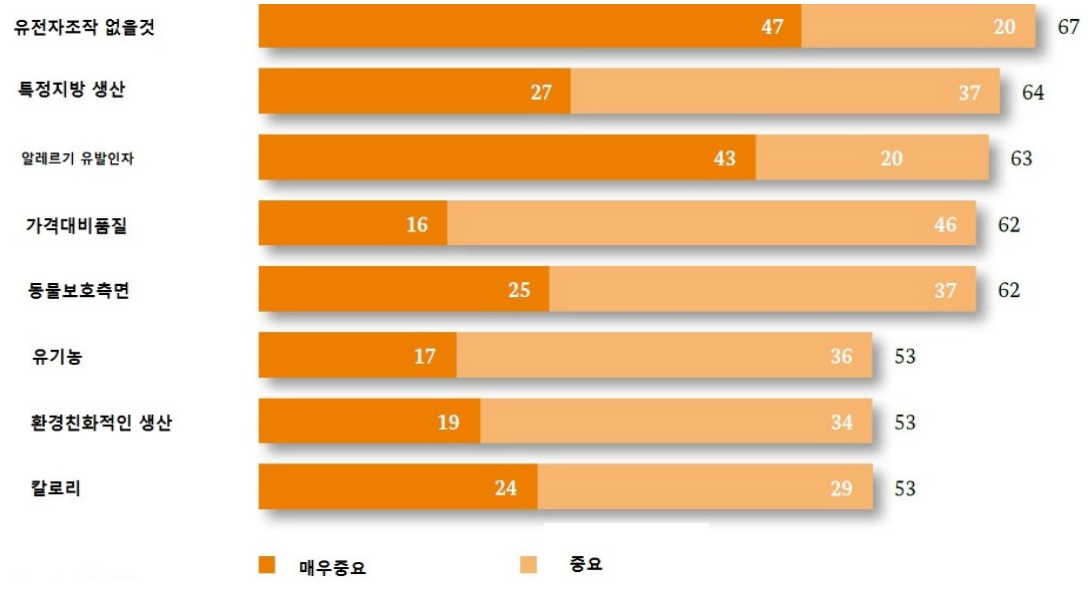
독일 수산물 소비 동향

1) 독일 식품시장 소비 동향

독일 소비자는 식품안전 및 품질,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독일 농식품부(BMEL,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가 2015년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식품안전성(97%)을 꼽았음. 그리고 이러한 식품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포장재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판단한다고 응답함
- 그 이외에는 “유전자 조작 유무(67%)”, “특정지방 생산 품목 선호(64%)”, “알레르기 유발인자 유무(63%)”, “가격대비 품질(62%)”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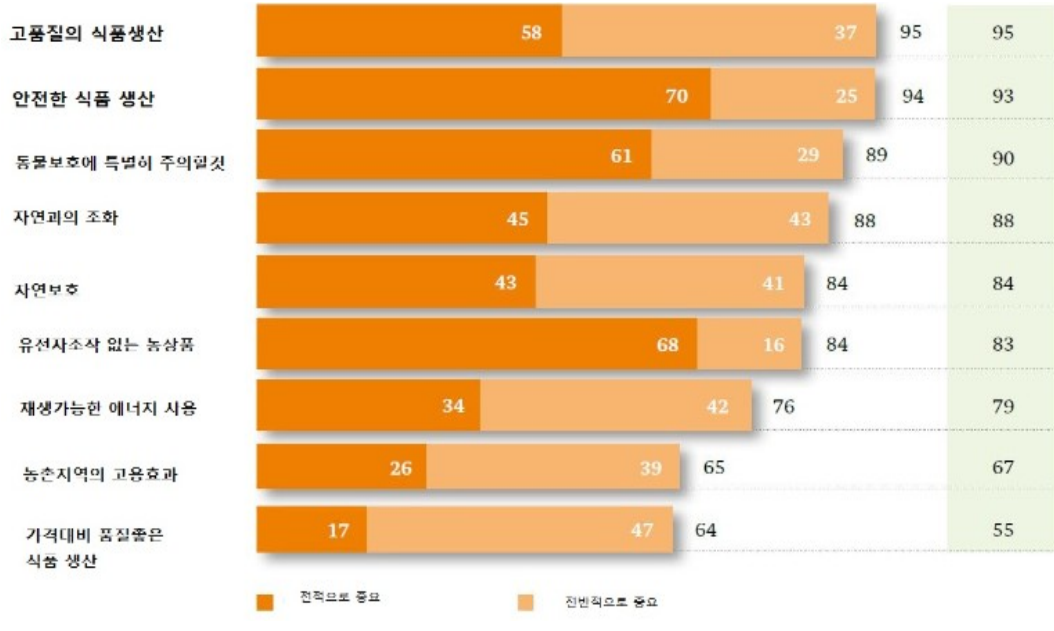
〈그림 3-6〉 독일 소비자의 식품 구매 고려요인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1456
(검색일자 : 2017. 12. 15.)

- 한편, 독일 소비자가 식품에 기대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의 식품 생산(95%)”, “안전한 식품 생산(94%)”, “동물보호에 특별히 주의할 것(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농업 식품에 대한 품질 · 안전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은 물론,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7〉 독일 소비자가 농업에 기대하는 점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1456
(검색일자 : 2017.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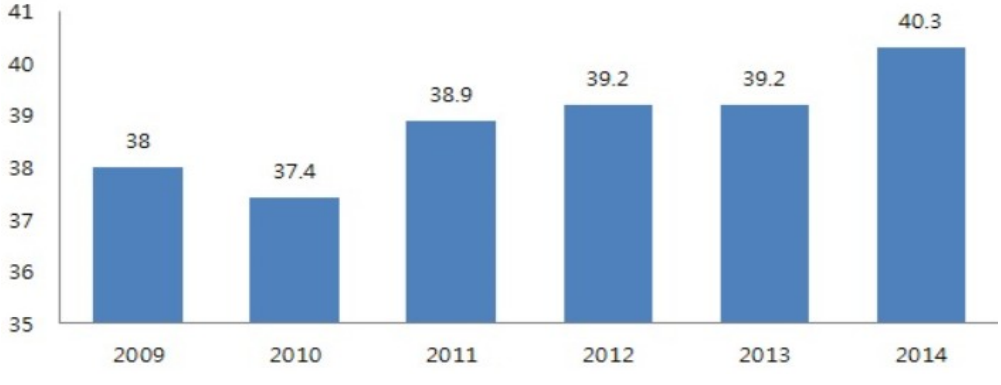
독일의 외식업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546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내 외식업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403억 유로이며, 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이후로 매년 2만 명 이상씩 증가해 2014년에 약 110만 명에 달함

- 외식업 관련 업체 수는 2013년 기준 16만4000개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반면, 매출액은 평균 2.7%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업점 수가 2만 4000개, 폐업점 수가 2만 3000개인데, 독일 전체 업체 수를 감안하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으로, 경제위기와 같은 방해요인이 없다면 2018년까지 546억 규모까지 성장이 전망됨

〈그림 3-8〉 독일 연도별 외식업 시장 매출 추이

단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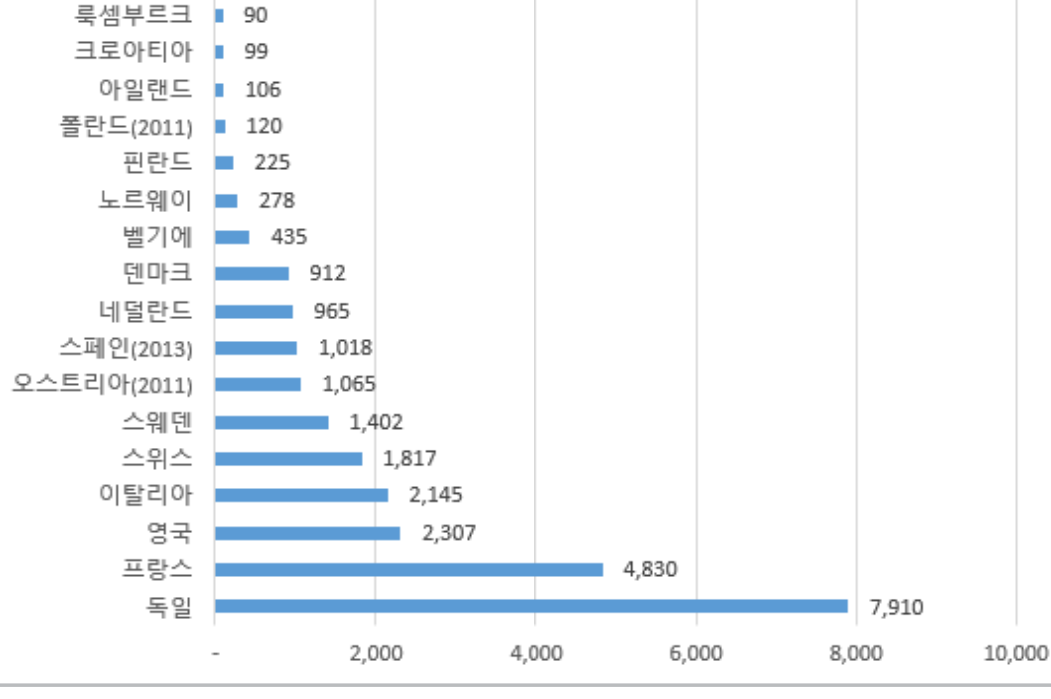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6678)
(검색일자 : 2017. 12. 15.)

독일 유기농 시장 매출이 약 79억 유로로 유럽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2014년 유기농 식품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독일은 약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97억 유로로 유럽의 선두주자이며, 세계에서도 2위 시장으로 평가됨
-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9〉 유럽 상위 17개국 유기농 식품 매출액(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aT, 「유럽(프랑스, 독일 중심) 유기농 식품 시장 심층조사」, 2015, p1

독일인은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 낮아 한식시장 확장에 유리함

- 2012년 Tomorrow Focus Media사가 독일인 9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새로운 요리를 즐겨 먹는다' 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한 응답자는 51.4%로 과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전체의 87.1%로 독일인 10명 중 9명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독일인 입맛에 맞는 한식 등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독일 수산물 소비 동향

독일의 수산물 소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음

- 소비자연구협회(GfK)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의 어류 및 해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2015년 독일의 수산제품 매출은 2014년 대비 3.1% 가량 상승한 37억 유로를 기록함
- 세부 산업별로는 수입어류를 활용한 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은 도매, 가공업, 소매 등의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독일 어류 및 수산물 관련 산업별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연도	매출액	증감률
수산가공업	2013년	2,150	
	2014년	2,054	
	2015년	2,165	+5.4%
어류수입	2013년	3,946	
	2014년	4,253	
	2015년	4,337	+2.0%
어류소매[4]	2013년	1,600	
	2014년	1,642	
	2015년	1,716	+4.5%
어류도매	2013년	3,373	
	2014년	3,201	
	2015년	3,307	+5.0%
수산물 식당/스낵	2013년	374	
	2014년	402	
	2015년	418	+4.0%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GfK)(검색일자 : 2017. 12. 15.)

독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4.1kg를 기록함

- 독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4.1kg으로 세계평균(20.0kg)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주요 소비 품목인 연어는 독일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로 소비량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됨

4) 판매부스 및 이동식 수산물 판매업 포함 추정치

〈표 3-4〉 독일 1인당 어류 및 수산물 소비량

단위: kg, 어획중량 기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소비량	15.5	15.5	15.2	15.2	15.5	14.8	13.8	14.3	14.1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지역별로는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레멘 등을 포함한 북부 연해지역의 수산물 소비량이 높음

- 독일 전체 16개 주의 수산물 소비량은 남 · 북간 큰 차이를 보이며, 북해 및 발트해 해안을 접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위치한 주의 수산물 소비량이 남부지역에 위치한 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주(州)별로는 북부지역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부류별로는 해수어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담수어담수어 제품, 갑각류·연체동물 순임

- 2015년 부류별 독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해수어가 8.5kg(어획중량 기준)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담수어 및 담수어 제품이 4.1kg,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소비량은 1.5kg 순임
- 제품별로는 생선통조림(병조림) 및 마리네이드가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냉동제품(26.0%), 갑각류 및 연체동물(14.0%), 훈제어류(13.0%), 신선어류(10.0%), 기타 제품(6.0%) 순으로 나타남

〈표 3-5〉 수산제품별 1인당 소비량 구성 비율

단위: %, 어획중량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통조림(병조림)&마리네이드	28.0	26.0	28.0
대서양청어 통조림(병조림) & 마리네이드	15.0	14.0	14.0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병조림)	12.0	11.0	13.0
정어리 & 대서양고등어 통조림(병조림)	1.0	1.0	1.0
냉동어류	29.0	29.0	26.0
갑각류 및 연체동물(신선, 냉동, 가공)	14.0	15.0	14.0
훈제어류	12.0	13.0	13.0
신선어류	9.0	9.0	10.0
기타 어류제품[5)]	6.0	6.0	6.0
생선샐러드	2.0	2.0	3.0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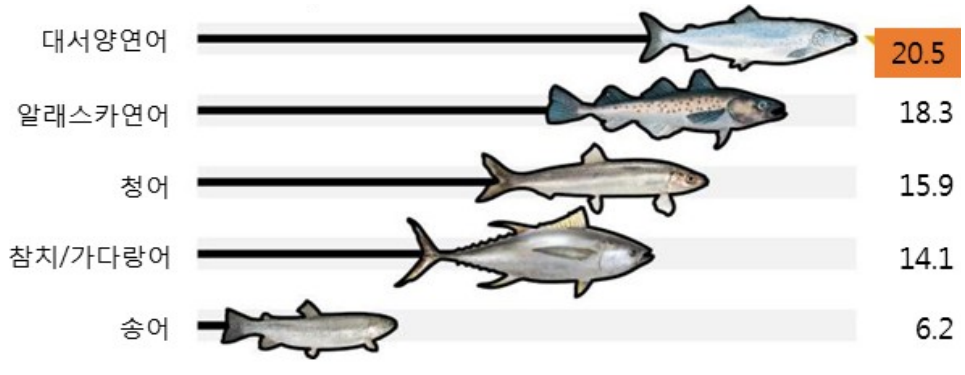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Die Deutschen haben einen neuen Lieblingsfisch, Die Welt(2016. 9. 8. 기준)

독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 어종은 연어, 청어, 참치/다랑어와 송어의 순으로 나타남

- 뉘른베르크 소비자협회(GfK)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종별 판매에서는 대서양연어가 20.5%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 수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나타남
- 또한, 알래스카연어가 18.3%를 기록하며 대서양연어에 이어 선호 어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청어(15.9%), 참치/가다랑어(14.1%), 송어(6.2%) 순으로 집계됨

〈그림 3-10〉 독일 소비시장 선호 상위 5개 어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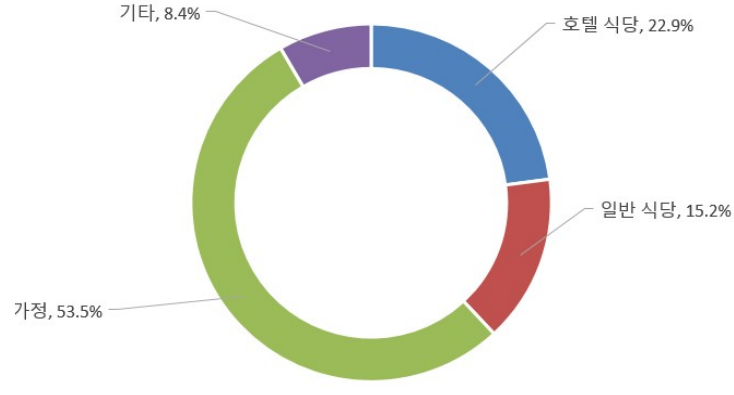
자료: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2016. 9. 8. 기준)

독일 소비자는 가정에서 수산물을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독일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5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호텔(22.9%), 식당(15.2%) 등의 순임
- 독일의 일반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가정 구성원 수를 고려하면서 수산물 · 수산식품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포장하므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음

5) 소량포장식품, 멸치, 소금에 절인 청어, 절인 청어, 대서양연어 제품 등

〈그림 3-11〉 독일 소비물 · 수산식품 소비 장소



자료 : 「2017年休水产品行业市场流通及消费现状调研分析报告」, 北京华经视点信息咨询有限公司, p61

독일에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에는 초밥 도시락이 인기가 끌고 있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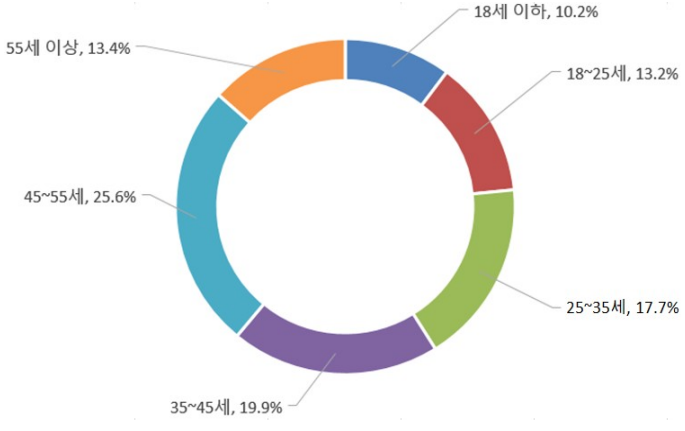
- 햄버거, 소시지, 이탈리아식 피자가 독식하던 패스트푸드 업계에 2000년대 초부터 건강과 웰빙을 앞세운 일본식 초밥 체인점이 오픈되기 시작함
- 대표적인 초밥 체인점인 Circle Sushi, Sushi Factory 사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각각 20개 이상의 체인을 두고 있음
- 이들 초밥체인 업체들은 레스토랑, 포장판매,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식당 형태로 고객층을 늘리고 있으며 매년 2,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함
-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도 초밥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어 고객들은 손쉽게 초밥을 접할 수 있음

고령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중 · 고령층에 집중됨

- 연령별 수산물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층은 4세~55세로, 전체 소비의 25.6%를 차지함
- 그 다음은 35~45세(19.9%), 25~35세(17.7%), 55세 이상(13.4%) 순임

6)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21337,(검색일자 : 2017. 12. 15.)

〈그림 3-12〉 독일 연령별 소비물 · 수산식품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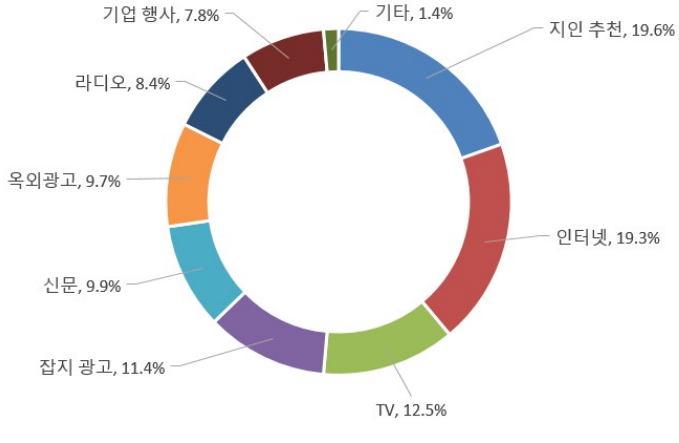


자료 : 「2017年休水产品行业市场流通及消费现状调研分析报告」, 北京华经视点信息咨询有限公司, p62

수산물 · 수산식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는 주요 지인 추천,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서 함

- 독일 소비자의 수산물 · 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 얻는 비중이 19.6%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은 인터넷(19.3%), TV(12.5%), 잡지 광고(11.4%) 등의 방식을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음

〈그림 3-13〉 독일 소비자 수산물 · 수산식품 브래드 인지 방법



자료 : 「2017年休水产品行业市场流通及消费现状调研分析报告」, 北京华经视点信息咨询有限公司, p68

영국 수산물 유통 동향

1) 영국 식품시장 유통 동향

영국의 유통 업태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매업은 디스트리뷰터, 브로커, 에이전트 등으로 분류되는데, 디스트리뷰터는 일반적으로 취급상품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상을 의미함
- 소매업의 경우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하는데, 크게 할인시장, 전문매장, 편의점, 백화점 등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매장과 식품 유통점 또한 소매상으로 분류됨

공공부문에서는 직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을 모색하는 추세이나, 민간부문에서는 중개상을 활용하는 공급비중이 여전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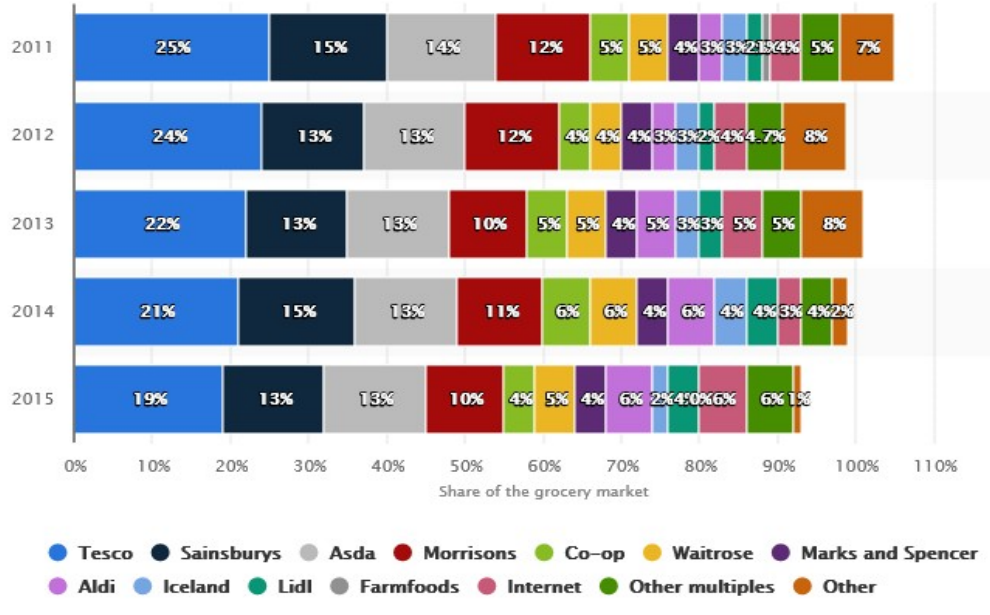
- 영국은 현재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많은 식품을 아시아 등 비유럽국가로부터 조달받고 있는데, 해당 지역 유통사들의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로 유럽 내 중개상(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
- 영국의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업태는 도매상, 브로커, 에이전트 등으로 분류되며, 소매상의 경우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구분됨

영국의 식품 유통망은 대형슈퍼마켓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영국의 주요 식품 유통망은 대형슈퍼마켓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Tesco이며, 그 뒤를 이어 Sainsburys, Asda, Morrisons, Metro Group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유통업체별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 제1의 유통업체인 Tesco의 경우 2011년 점유율이 25%에서 2015년 점유율은 19%로 크게 하락함
- 테스코(Tesco)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형슈퍼마켓 체인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매장임. 영국 내 매장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가장 좋음
- 세인즈버리(Sainsburys)는 식료품 제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으로 타 기업에 비해 매장 크기가 작고, 타겟층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식료품 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음

- 아스다(ASDA)는 창고형으로 운영되는 매장임. 매장의 규모가 큰 대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다른 매장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나, 타 매장에 비해 온라인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
- 모리슨(Morrisons)은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유통업체이며 매장의 절반 이상을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운영하는 매장임. 아스다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3-14〉 2015년 영국 대형 식품 유통업체의 점유율



자료: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82070/distribution-of-the-grocery-market-in-the-united-kingdom-uk-by-retailers/ (검색일자 : 2017. 12. 15.)

경제위기 속에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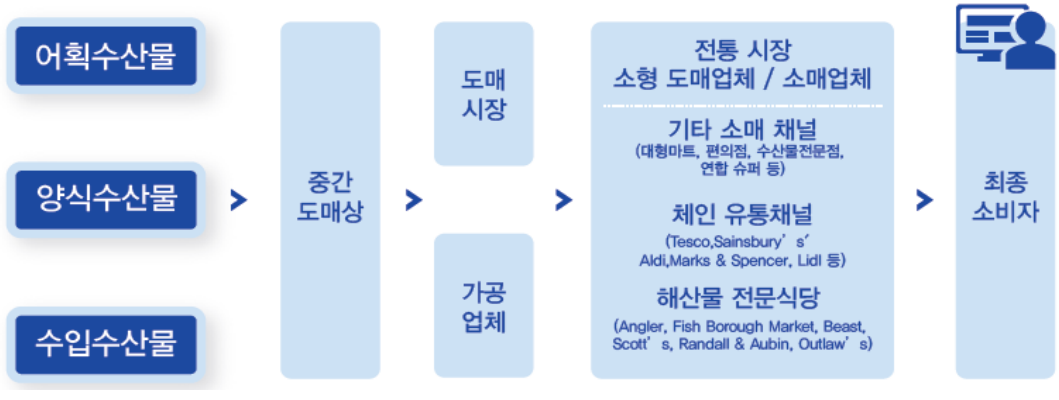
- 서유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그러한 요인 중 하나로 유럽 국가들은 한 동안 경제위기를 겪어온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기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임
- 온라인 최대 시장인 중국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크며, 온라인 유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망으로는 Amazon, Tesco, Ocado, eBAY, Asos, Argos 등이 있으며, Amazon은 영국 내 주요 온라인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음

2) 영국의 수산물 유통 동향

영국 수산물은 중간 도매상, 도매업체, 가공업체, 재래시장 및 유통체인 등을 거쳐 유통됨

- 영국은 어획, 양식 혹은 수입을 통해 수산물을 조달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 까지는 중간 도매상, 도매시장 및 가공업체 등을 거치게 됨
- 유통과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여전히 중간 도매상을 활용하고 있음

〈그림 3-15〉 영국의 수산물 유통 과정



자료 : 베이징 화경시점정보자문유한공사, 「서유럽 수산식품 시장분석 및 전망 분석(2017)」, p.54

수산물은 주로 대형 유통체인에 유통됨

- 많은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와 관련하여 대형 유통체인을 선호하는 만큼, 대형 유통체인으로 공급되는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영국 주요 유통업체의 수산 제품은 간편식, 소포장, 흰살 생선, 갑각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간편식은 영국 유통마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군임. HMR 형태의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냉장 보관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스 및 향신료에 양념되어 이미 조리된 새우를 빵에 올려먹거나 냉파스타(cold pasta) 샐러드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 등이 있음

- 신선·냉장 어류 역시 대부분 피레트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구매 후 추가 손질 없이 세척 후 바로 요리 가능함
- 대형 포장된 냉동 수산식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0~300g 사이의 소포장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음
- 품목별로는 해덕, 대구, 넙치, 바사(Basa) 등 흰살 생선과 연어, 새우, 스캠피, 랍스터살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연어(스코틀랜드), 대구, 해덕 등의 주요 수산물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수입하여 영국에서 가공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전자상거래 기반의 온라인 수산물 유통 판매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소비자는 식품 분야에서 타 유럽 국가보다 가장 높은 온라인 구매율을 보이며, 영국 주요 식품 주간지 The Grocer은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식품 구매율이 2020년 7.5%에 이를 것이라 전망함
- 또한 아마존(Amazon)이 모리슨(Morrisons)과 합작하여 신선 · 냉동식품 온라인 유통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표 3-6〉 영국 주요 대형마트 현황

구분		내용
TESCO	상호명	TESCO
	소개	– 25년 이상 영국 식료품 업계의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켜온 최대 식품 소매 유통업체로 약 3,0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지역별 매장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국 온라인 구매 (click-and-collect) 유통을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여전히 강자로 자리매김해 있음 – 특정 지역별 고객의 필요(needs)에 따라 5가지(Extra, Superstore, Metro, Express, One-stop)의 상점 형태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판매 제품		

01



상품명 : Boneless Salmon Fillets (뼈 제거된 연어 피레트)
소 재 : 연어
제조사 : TESCO finest(자체 PB상품)
원산지 :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양식산)
가 격 : £4.25(6,332원)
용 량 : 260g

02



상품명 : Smoked Haddock, Cod Fish cakes
(훈제 어묵 – 해덕, 대구)
소 재 : 해덕, 대구
제조사 : TESCO finest(자체 PB상품)
원산지 : 영국
가 격 : £2.65(3,948원)
용 량 : 290g
특 징 : 한국의 어묵과 비슷한 형태의 데워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식사대용 및 스낵으로 섭취하며, 치즈와 다진 채소 등이 첨가된 제품도 출시된다.

03



상품명 : Lightly dusted Plaice Fillets
(밀가루 입혀 튀긴 가자미 피레트)
소 재 : 가자미
제조사 : TESCO finest(자체 PB상품)
원산지 : 영국
가 격 : £3.00(4,470원)
용 량 : 265g
특 징 : 영국은 밀가루 반죽 또는 빵가루를 묻혀 튀긴 형태의 흰살 생선을 많이 소비한다.

한국산 수산식품 판매 동향



상품명 : Korean Seaweed Snack
소 재 : 김
제조사 : J-Basket
원산지 : 한국
가 격 : £0.69(1,011원)
용 량 : 4g

주 : 2017.10.18. 기준 환율, 1파운드 = 1,490.17원
자료 : www.tesco.com(2017. 10. 18)

〈표 3-7〉 영국 주요 대형마트 현황

구분		내용
Sainsbury's	상호명	Sainsbury's
	소개	– 영국 소매업 유통업체 2위로, 2016년 6월 기준, 598개의 슈퍼마 켓, 714개의 편의점으로 총 1,31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공정무역(fair trade) 시장의 약 30%를 차지함과 동시에 유기농 및 자연친화적 식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주요 판매 제품

01



상품명 : Salmon Fillet (연어 피레트)
소 재 : 연어
제조사 : Sainsbury's(자체 PB상품)
원산지 : 영국
가 격 : £6.00(8,939원)
용 량 : 260g

02



상품명 : King Prawns in Garlic&Parsley(RTE)
(마늘, 파슬리 양념된 새우)
소 재 : 새우
제조사 : Sainsbury's(자체 PB상품)
원산지 : 영국
가 격 : £2.40(3,575원)
용 량 : 150g
특 징 : 빵에 올려 먹거나 냉파스타(cold pasta) 샐러드용 새우로 완전 조리 식품이다.

03



상품명 : Fish Fingers – Haddock (해덕 피시 핑거스 스낵)
소 재 : 해덕
제조사 : Birds Eye Limited
원산지 : 영국
가 격 : £2.00(2,979원)
용 량 : 280g
특 징 : 생선살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빵가루를 입혀 튀긴 피시핑거(fish finger)는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수산식품 중 하나이다.

한국산 수산식품 판매 동향



상품명 : Itsu Crispy Seaweed Thins,
(Wasabi), (Sweet Soy & Sea Salt)
소 재 : 김
제조사 : Itsu
원산지 : 한국
가 격 : £2.00(2,931원)
용 량 : 3x5g

주: 2017.10.18. 기준 환율, 1파운드 = 1,490.17원
자료: www.sainsburys.co.uk(2017. 10. 18)

〈표 3-8〉 영국 주요 대형마트 현황

구분		내용
ASDA	상호명	ASDA
	소개	– 1999년 월마트가 매입했으나, 영국 특유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 – 'Every day low price' 를 모토로 최저가 대 형할인 마트 타이틀을 두고 TESCO와 경쟁관계에 있음 – '영국 동북부를 중심으로 62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판매 제품

01



상품명 : Herring Rolls with Onion (양파와 함께 절인 청어롤)
소 재 : 청어
제조사 : Lisner
원산지 : 폴란드
가 격 : £3.00(4,470원)
용 량 : 265g
특 징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청어 피레트를 소금, 식초, 식물성 오일에 절인 제품으로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 넣어 먹거나, 다진 채소 및 양념을 올려 핑거푸드로 소비된다.

02



상품명 : Ultimate Jumbo Scampi (스캠피 – 특대)
소 재 : 스캠피(랍스터류)
제조사 : Whitby Seafoods
원산지 : 영국
가 격 : £3.00(4,470원)
용 량 : 220g
특 징 : 주로 노르웨이에서 많이 잡히는 랍스터의 일종으로 갈릭 버터와 곁들려 먹거나 파스타 요리 재료로 사용된다.

한국산 수산식품 판매 동향

01



상품명 : Chongaa Grilled Seaweed Snack
소 재 : 김
제조사 : 종가집
원산지 : 한국
가 격 : £1.43(2,095원)
용 량 : 3x5g

02



상품명 : Smoked Mussels in Sunflower Oil
소 재 : 홍합
제조사 : Chongga
원산지 : 한국
가 격 : £1.48(2,168원)
용 량 : 85g

주 : 2017.10.18. 기준 환율, 1파운드 = 1,490.17원
자료 : www.Morrisons.com(2017. 10. 18)

〈표 3-9〉 영국 주요 대형마트 현황

구분		내용
Morrisons Since 1899	상호명	Morrisons
	소개	– 강력한 공급망을 이점으로 지역별 신선식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 나 최근 2~3년간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 전국에 569개의 상점을 보유하고 있고 매주 평균 9백만 명의 고객이 방문함 – 중저가 제품라인을 중심으로 특별할인(special offers), 다중 할인 프로모션(multi-save promotions) 제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주요 판매 제품		



01

상품명 : Breaded Cod & Chips
(빵가루 입혀 튀긴 대구와 감자튀김)
소 재 : 대구
제조사 : Morrisons Market St(자체 PB상품)
원산지 : 영국
가 격 : £2.50(3,723원)
용 량 : 300g
특 징 : 영국의 대표 메뉴인 피쉬 앤 칩스는 일반 슈퍼마켓의 '즉석 요리 코너'에서도 판매된다. 빵가루 혹은 맥주·밀가루 반죽을 입혀 튀긴다.



02

상품명 : Crispy Fish Bites (바삭한 생선 튀김 스낵)
소 재 : 명태
제조사 : Birds Eye Limited
원산지 : 영국(원재료 : 미국)
가 격 : £3.00(4,470원)
용 량 : 265g
특 징 : 어른 및 어린이 간식용으로 적절한 한입 사이즈로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생선 튀김

주 : 2017.10.18. 기준 환율, 1파운드 = 1,490.17원
자료 : www.Morrisons.com(2017. 10. 18)

영국 수산물 소비 동향

1) 영국 식품시장 소비 동향

영국은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와 관련된 식품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함

- 영국의 슈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의 식품과 음료에 관한 보고서(Food and Drink Report)에 따르면[7] 2017년 매출 상승을 보인 10대 식품류로는 짙은 녹색채소, 부다볼, 강황가루, 주니퍼베리, 땅콩버터, 탄수화물류, 브런치류, 허브류, 단밸질류, 블루베리가 있음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소비자들이 녹색채소, 부다볼 등의 식품을 찾고 있으며, 운동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에도 관심이 높음

인구 사회구조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간편식이 확대 되고 있음

- 영국은 세계에서 1인당 HMR 소비액이 높은 나라로,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HMR 상품을 구입해 집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미소된장국, 라멘, 야키도리, 아게다시도후 등 일본 간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무첨가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Euromonitor에 따르면 영국의 무첨가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5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이 중 자연건강식품 시장은 약 50억 파운드, 유기농식품 시장이 10억 파운드 가량 됨
- 더불어 글루텐프리 시장은 2012년 대비 약 2배 성장한 3억 6천만 파운드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등,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루텐과 GMO, 유당 등 알레르기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배제한 식품이 발달하고 있음

인증 취득 여부는 주요 구매 요인임

- 영국산과 수입제품에 관계없이 성분과 첨가물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증 취득 여부가 제품의 주요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7) 영국의 슈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 「식품과 음료에 관한 보고서(2017-2018)」, p2 참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Kantar Worldpanel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 중에서 온라인 식료 잡화류 쇼핑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1위가 한국, 2위는 영국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의 규모를 짐작케 해줌
- 영국의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2000년에 식료품 유통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오프라인 매장 없이 시작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음
-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아마존(Amazone)이 영국 식품 소매유통업체 모리슨(Morrisons)과 제휴를 통해 영국 일부에 신선·냉동식품 공급을 개시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부터는 모리슨의 자체 브랜드에 신선·냉동식품 라인을 추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식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영국 내 아마존의 당일배송(프라임 서비스)은 런던, 버밍험, 뉴캐슬, 맨체스터, 리버풀 등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6〉 주요 국가별 온라인 식료 잡화류 쇼핑 비중



자료 : Kantar World panel(2017. 09. 30.)

2) 영국 수산시장 소비 동향

영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영국은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로, 높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식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이에 따라 수산물 소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16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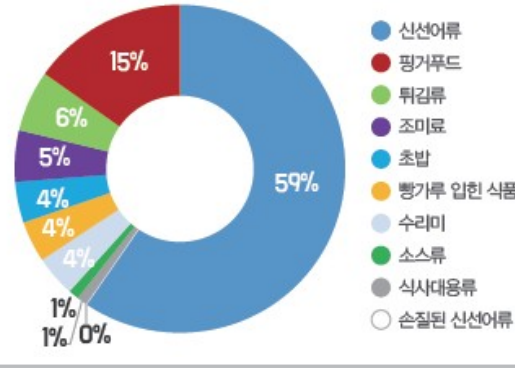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4.9kg을 기록함

- 영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4.9kg으로 EU 28개국 평균인 23.6kg을 상회하고 있음
- OECD-FAO에 따르면 영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냉동 수산물보다 신선 · 냉장 수산물의 선호도가 높고 흰살 생선류와 갑각류 소비가 기타 어종에 비해 높은 편임

- 영국 내에서는 냉동 수산물 보다 냉장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냉장 수산식품 역시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음
- 그 형태를 살펴보면,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물은 물론, 저차 가공 손질된 수산물, 양념 및 소스류가 들어간 수산물, 수산물의 어육을 다져 각종 채소와 섞어 만든 어묵 제품, 빵가루를 입힌 수산 가공식품, 피시핑거스 제품 등이 있음

〈그림 3-17〉 영국 소비자의 신선 수산물 가공형태별 구매 선호도



자료 : Seafish(2017. 09. 30.)

8) 베이징 화경시점정보자문유한공사, 「서유럽 수산식품 시장분석 및 전망 분석(2017)」, p48 참조

연어, 대구, 참치, 새우, 해덕은 영국의 주요 수산물 소비 품목임

- 영국에서 주요 수산물 소비 품목은 연어, 대구, 참치, 온대성 새우와, 해덕이 대표적임
- 특히 연어 소비량은 크게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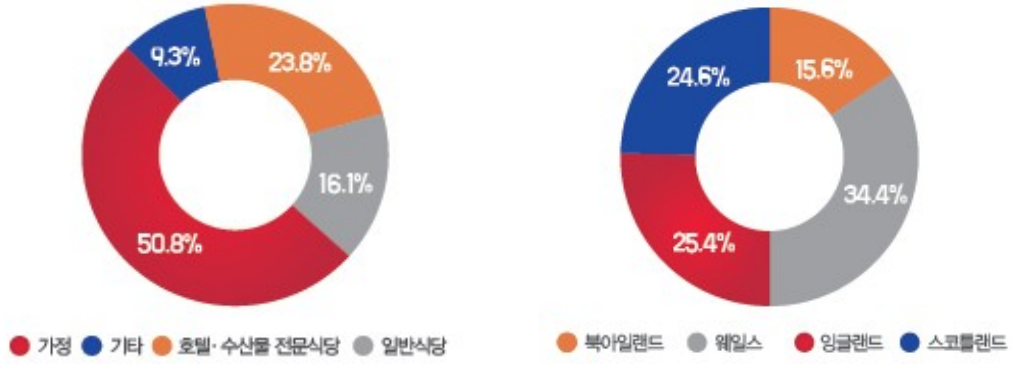
수산물 소비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이 호텔 및 프리미엄 수산물 전문식당(23.8%), 일반식당(16.1%) 순으로 외식보다 가정에서의 소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웨일스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수산물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웨일즈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순임

〈그림 3-18〉 영국의 수산물 주요 섭취 장소 및 지역별 소비 비중



자료 : 베이징 화경시점정보자문유한공사, 서유럽 수산식품 시장분석 및 전망 분석(2017)」, p33, 37 참조

지속가능한 수산물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

- 영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자원 관리를 중요시 여길 뿐만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지속 가능 자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기도 하며,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 저인망 어업과 같이 특정 어법으로 어획된 품목에 대해선 강력히 규제를 하기도 함
- 또한 라벨링을 통해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원산지, 어획방법 또는 양식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영국 소비자들은 MSC 인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중에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그림 3-19〉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



자료: http://www.goodtoknow.co.uk/recipes/549044/joe-wicks-fish-finger-sandw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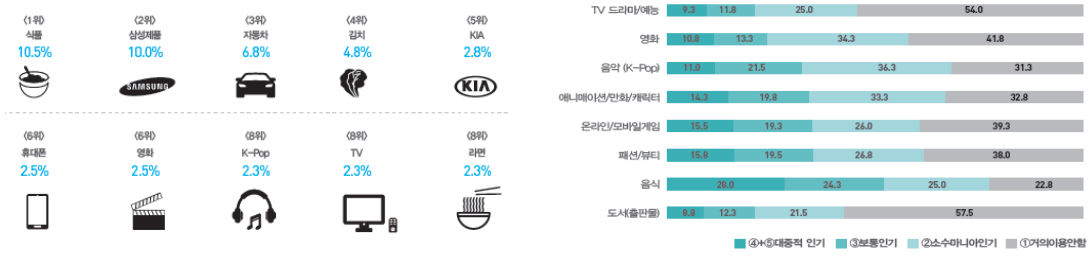
영국 내 무슬림 인구 증가와 웰빙식품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2016년 영국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 수와 영국 태생 무슬림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 10년간 영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해 영국 전역에 약 31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30년이면 약 5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영국 할랄식품 관련 행사인 'Halal Food Festival' 주최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할랄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7억 파운드로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라고 밝힘
- 무슬림 인구 증가는 할랄식품 수요 증가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Sainsbury), 모리슨(Morrisons), 아스다(Asda) 등 영국 대형 유통체인에는 대부분 할랄식품이 입점해있음

한류에 힘입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

- 한국은 영국에서 '문화 강국'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호적인 국가로 여겨짐
- 그 중에서도 한국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를 '식품'을 첫 번째로 꼽을 만큼 한식은 한류열풍과 함께 영국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
-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1~2년 내 한국 음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37%로 나타나, 오히려 한류 문화보다도 높게 나타남

〈그림 3-20〉 한국 연상 제품 순위 및 영국의 인기 한류 컨텐츠



자료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글로벌 한류실태조사(2017)」, p.41, 51

EU 수산물 인증 동향

1) EU 수산물 품질 인증

(1) 인증 도입 배경 및 특징

- 다른 식품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수산물 제품에도 품질 인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품질 등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각 인증은 생산 단계 내 자체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나, 보통 유기농 인증과 비유기농 인증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또한 어종은 매우 다양한 생활환경 및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증 부여 단계에서 이러한 어종의 차이가 고려되기도 함
- 양식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인증은 생산 시스템, 사용된 사료, 양식장 내 관리어류 밀도 등과 같은 표준으로 정의됨

(2) 수산물 인증 종류

- 수산물 인증은 국가나 기관 등에서 발급되는 인증을 신뢰하고 있으며 ASC, MSC, BA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취급되고 있음
- 주로 취급되는 국제 인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10〉 수산물 관련 국제 인증

인증 종류	인증 표시	소개	기준 또는 조건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세계 자연 기금의 지도에 따라 2009년에 설립	– 양식장 내 밀도 : 최대 80Kg/m^3 (메기과의 경우) – 수입국에서 허용하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만 허용 –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 부합 여부 – 사료 단일 구성성분 추적 가능
BAP (Best Aquaculture Practices)		– 세계 수경재배 얼라이언스(GAA)에 의해 1997년에 설립 – 동물보호,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식품안전 등이 검사 대상 – 특히 사료 성분으로 식물성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보호	– 양식장 내 밀도: 최대 25kg/m^3 (연어류만 해당) – 수입국에서 허용하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만 허용 –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 부합 여부 – 사료 단일 구성성분 추적 가능
GLOBAL G.A.P.		– 1997년 'Good Agriculture Practice, GAP' 인증이 만들어 졌으며, 2004년부터는 양식산업 또한 포함하도록 설립 – 식품안전, 동물보호, 작업안전, 환경보호 및 생산단계에서의 사회 적인 요소 등이 검사 대상 – 해당 인증은 순수 비즈니스를 위한 인증으로, 생산자의 정보를 유통업자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	– 수입국에서 허용하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만 허용 –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 부합 여부 – 사료 단일 구성성분 추적 가능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Die Deutschen haben einen neuen Lieblingsfisch, Die Welt(2017. 12. 19.)

〈표 3-11〉 수산물 관련 EU 및 독일 인증

인증 종류	인증 표시	소개	기준 또는 조건
Bio Siegel		– 2007년 EU 환경 기본 규정에 생태학적인 양식장과 관련된 분야가 추가, 2010년부터 발효 – 특히 보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고기들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 – 소비자를 위한 인증	– 양식장 내 밀도 : 최대 10~25kg/m^3 (어종에 무관하게 적용) – 환경보호 기준 부합 여부 – 사료 단일 구성성분 추적 가능, 친환경 성분 요구 조건 충족 필요
FOS (Friend of the Sea)		– 2005년 유럽 돌고래 안전 인증 이사장인 Paolo Bray에 의해 설립 –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산업을 동일하게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인증	– 양식장 내 밀도: 특별한 지시 없음. –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만 허용 – 환경보호 기준 부합 여부, 특히 생산자들은 매년 CO2 양 기록 후 제출 필요
Naturland		– Naturland 협회에서 1990년대 중반에 양식산업의 다양한 방법 및 양식 시스템을 위해 해당 표준을 설정 – 화학제품 사용 금지, 자연 및 동물 보호에 중요성 부과 – 인위적인 재배 불가 – 소비자를 위한 인증	– 양식장 내 밀도: 10kg/m^3 (어종에 무관하게 적용) –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 부합 여부 – 사료 단일 구성 성분 추적 가능

자료 : Fischwirtschaft – Daten und Fakten 2016, Fisch–informationzentrum e.V.(FIZ)
Die Deutschen haben einen neuen Lieblingsfisch, Die Welt(2017. 12.. 19.)

K-Fish Information Center

CHAPTER / 4

EU 수산물 통관 동향

제 1 절 EU 수산물 통관 절차

제 2 절 EU 수산물 검역 · 검사

제 3 절 EU 수산물 라벨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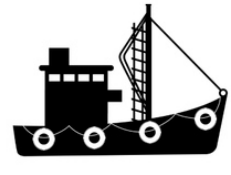
EU 수산물 통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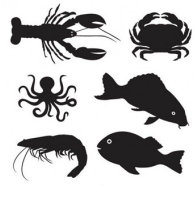
EU 수산물 통관 개황

EU 28개국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유럽공동관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EU 28개국에 대한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유럽공동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각 회원국의 국가별 규정이 적용됨

〈표 4-1〉 EU 수산물 수출 절차

구분	승인 단계		등록 단계
내용			
	■ EU 수출가능 국가승인	■ EU 수출가능 어획선박 등록	■ EU 수출가능 생산 · 가공 공장 등록
기관/당사자	유럽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분	어획 단계	가공 단계	판매 단계
내용			
	■ 어획증명서 발급	■ 위생증명서 발급	■ EU 라벨링 ■ 중금속기준(검역)
기관/당사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거래당사자

1) EU 수산물 · 수산식품 수출 절차

EU로의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수출 국가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제3국으로 승인받아야 함

- EU 수출가능 국가 승인 획득을 위해서는 국가 당국이 유럽 집행위원회 건강 및 소비자 보호청에 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침
- 해당 승인은 공중 보건 및 통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승인받은 국가에서 수출된 수산물과 수산식품은 생산과정에 있어 유럽연합의 위생에 관련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EU 수산물 · 수산식품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 EU 수출승인 국가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임

등록단계에서는 수출가능 어획선박 및 생산 · 가공공장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함

- 우리나라는 현재 해당 등록 업무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가공공정에 대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유럽연합에서 발급하는 공식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 즉,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 · 수산식품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요청하여 EU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함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등록을 비롯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 · 점검 ·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며, 이는 각 등록과 관련된 신청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일지라도, EU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로 수출가능 작업장으로 등록해야 함

〈표 4-2〉 EU 수산물 및 수산식품 생산 가공시설 관련 규정

구분	내용
목적	①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 및 ②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 · 점검 및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
대상시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시설
주요 위생관리 기준	• 생산가공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 • 일반 위생관리기준 • 패류의 생산 · 가공 및 처리 · 저장 · 수송에 관한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등록시설 사후관리	• 정기조사 점검 : 등록시설 연2회 (선박 : 2년 1회 이상) • 수시조사 점검: 협약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 · 가공시설 등의 등록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 등의 등록사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8조(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조사 · 점검)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9호) •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7호)
등록신청서	• 수출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가공선박, 냉동선박 등록신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신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 생식용생굴가공시설등록신청: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0호 별지 제1호 서식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 및 가공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선박일지라도,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운반선은 우리나라의 EU 수출가능 선박으로 등록 가능함

- 단, 용선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유효기간동안 가능하며, 만약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등록을 취소해야함
- 특히, 수입수산물에 대해 발급되는 EU 가공증명서는 기국에서 발급받은 어획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 기국에서 발급받은 어획증명서 상의 조업선이 EU 등록선박인 경우에 한하여 위생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표 4-3〉 EU 가공증명서 발급요건 및 구비서류

구분	내용
발급요건	• 수입수산물에 대해 발급 • 기국에서 발급받은 어획증명서 원본 필수 제출 • 해당 어획증명서 상의 조업선이 EU 등록선박인 경우에 한하여,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	① 가공증명서 발급 신청서(수출자 명의 공문형식) ② 가공증명서 원본 ③ 어획증명서 원본 ④ 원료가 수입산일 경우 수입면장 ⑤ 거래명세서(수입자와 가공증명서 발급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함

- '어획증명제도'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일지, 항적 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한 후 합법어획물에 대하여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함
-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IUU)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옴
- EU로 패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U 수출대상 한국산 식용 이매패류, 극피동물,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는 지정된 생산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지정해역 채취 확인서를 첨부·확인한 이후 수출이 가능함
- 특히, 바지락의 경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굴, 가리비과 패류는 어획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함

〈표 4-4〉 한국산 패류 지정 생산지역

구분	내용	
지정 생산지역 (총 7개소)	① 한산도-거제만(1호 해역)	⑤ 나로도(5호 해역)
	② 자란만-사량도(2호 해역)	⑥ 창선(6호 해역)
	③ 산양(3호 해역)	⑦ 강진만(7호 해역)
	④ 가막만(4호 해역)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안 어획물은 기타 국가로 수출 및 가공 후 최종적으로 EU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EU 상대국 바이어가 우리나라 연안 어획물(고등어, 방어 등) 제품에 대한 어획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베트남, 태국 등지로의 수출 및 가공 후 최종적으로 EU로 수출한 거승로 확인되는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단, 기발행 된 어획증명서는 수출량에 따른 사후분할이 불가능하며, 어획증명서는 EU 회원국 요청에 따라, 수출할 때마다 수출물량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한 후 EU지역으로 수출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수입품의 경우에는 조업 기국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표 4-5〉 어획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구분	내용
원양어획물	①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수출자 명의 공문 형식) ② 어획증명서 원본 ③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 사본(원양에서 바로 수출 시 제외) ④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⑤ 선박국적증서 사본 ⑥ 선박 EU등록증 사본 ⑦ 거래명세서(선박소유주와 수출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⑧ 조업선 선장어획확인서(조업정보)
연안어획물 (위 · 공판장 수매)	①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수출자 명의 공문형식) ② 어획증명서 원본 ③ 위공판장 및 수협명의의 위판확인원 원본 (조업선 정보, 물량, 위판사실 확인기재) 또는 조업선 선장어획확인서(조업정보) ④ 해당조업선의 어업허가증 사본 ⑤ 해당조업선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⑥ 거래명세서(어획확인원 수령자와 수출자 명의가 다를 시)
2010년 이전 어획증명서	① 이전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수출자 명의 공문형식) ② 어획증명서 원본 ③ 2010년 이전 어획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입품(수입필증 등), 원양어획물(원양어획물반입신고확인서), 연근해산(위판확인서, 선장 어획확인서) ④ 거래명세서(필요시)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IUU 어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유럽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수산물 시장으로의 진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음.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스리랑카 등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음
-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수행함

- 2015년 4월 우리나라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부터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잡히는 민어류와 북태평양 꽁치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 수출국 · NGO로부터 우리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수입품의 경우에는 조업 기국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EU는 IUU 통제법 제12조에 따라, IUU 어업으로 획득한 수산제품은 전면 수입을 금지함

- FAO와 EU 등 국제사회는 IUU어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FAO는 2009년 11월 22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을 채택함
- FAO 수산위원회(COFI) 역시 'IUU 예방 · 방지 ·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 계획(IPOA)'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회원국에 필요조치를 촉구하였음
- 또한 FAO는 2016년 4월,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마련해 지침안에 대한 기술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표 4-6〉 IUU 관련 국제법적 근거

구분		내용
EU	IUU 통제법	1. IUU 어업으로 얻은 수산제품의 EC내 수입은 금지된다. 2. 제1항의 금지조항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EC 내로 수입되는 수산제품은 본 규정에 따르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FAO	항만국 조치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시장관련조치.....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활용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
	수산위원회(COFI) IUU 예방 · 방지 ·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	한국 IUU어업의 예방 억지 근절을 위한 NPOA는 다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IUU어업 근절을 위해 기국의 책임....시장국 조치....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 포괄적 종합적 접근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자발적 지침(안)	"본 지침은 IUU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개발, 이행, 조율 혹은 검토할 때 도움을 제공....."

자료 : 해양수산부 어획증명제도 설명자료 Q&A(2017년 6월 기준)

수산물 · 수산식품의 EU 수입 통관시 유럽연합 수출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 현장 실사를 실시함
- EU 등록선박이 원양에서 조업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EU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선박의 선사에서 '수산물 ·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일지' 및 조업선 선장이 서명한 어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출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표 4-7〉 수출검사 근거 및 대상

구분		내용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96조(재검사)
검사 대상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 EU: 수산물(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포함) 및 수산제품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 · 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 중국 및 러시아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EU 수출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는 EU 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되어야 함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품명, 국가명, 생산 · 가공시설 명칭 및 등록번호 표시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 · 규격에 의한 검사	그 기준 · 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관련 규정	기본규정	• 수산물 · 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 수출 수산물 · 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해양수산부고시]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기타 관련규정	•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해양수산부고시] •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 지정해역의 지정고시[해양수산부]
신청서류		• 수산물 · 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1부 • 신청에서 정한 구비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처리기간 : 3일 (정밀검사시: 7일)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 4-8〉 수출검사 방법

구 분		내 용
검사 방법	서류 검사	•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 •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의 여부 등 확인 • 생산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확인(등록시설만 해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여부의 확인(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관능 검사	• 오관(다섯가지 감각)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외국 요구 기준의 이행확인을 위한 품질, 포장재, 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비식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외)
	정밀 검사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 검사 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시설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수산물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U 수산물 검역 · 검사

1) EU 수산물 수출 검역 · 검사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인 [(EC) No 854/2004]는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한 동물 유래 제품을 관리하는 공식 통제 기관을 위한 규칙을 정함[9)]

- Article 7(Fishery Products)에 의하면 모든 EU회원국은 수산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가 Annex Ⅲ (Fishery Products)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장해야 함
- Annex Ⅲ, Chapter Ⅱ는 수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 관련 내용을 다루며 다음과 같음

A. **관능검사 :**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무작위로 수행하며, EU 법규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B. **신선도 표시기 :** 관능검사에서 수산물의 신선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시, 샘플을 채취하여 총 휘발성 염기성 질소(TVB-N) 및 트리메틸 아민 질소(TMA-M)의 수준을 검사,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함

C. **히스타민 검사 :** EU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를 수행함

D. **잔여물 및 오염물질 검사 :** EU 법규에 따라 잔여물 및 오염물질의 수준을 제어함

E. **미생물 검사 :** 필요한 경우, 미생물 검사를 수행함

F. **기생충 검사 :** EU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를 진행함

G. **독성이 있는 수산물 검사**

- 참복과(Tetraodontidae), 개복치과(Molidae), 가시복과(Diodontidae), 청복과(Canthigaster)에 속하는 수산물은 시장 유통을 금지함
- 기름치(Ruvettus pretiosus), 에스코라(Lepidocybium flavobrunneum) 군에 속하는 제품은 신선/냉동/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포장된 형태로만 시장 유통 가능,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라벨링이 있어야 함. 특히 조리 방법 및 인체 내 위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수산물의 학명과 일반적인 명칭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인체 건강에 위험한 독소(시가테라/ciguatera 등)를 함유한 수산물은 시장 유통을 금지함
- 이매패류(bivalve molluscs), 극피동물(echinoderm), 피낭동물(tunicate), 해양 복족동물(marine gastropod) 등은 규정된 일정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장 유통이 가능함

9) 독일 수산물 협회, 라이프니츠 수생 생태 및 내수 어업 연구소, 독일 관세청, 독일 식량 및 농업 연방부처, 독일 소비자보호 및 식품 안전 연방청, 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의 내용을 통해 요약 및 정리함

EU 수산물 ·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

EU 수산물 ·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

EU로 수입되는 수산물 · 수산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 검사를 거쳐 EU 국경에서의 통관 거부를 사전에 예방함

- 생산과정이나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식품에 접촉,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됨. 오염물질은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및 펜타클로로페놀(PCP),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을 말함
-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따른 오염 또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대상에 포함됨. 수입 과정에 있어 미생물 수준을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출 시점에 미생물 오염 관련 최소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위생검사 절차를 이행해야함
- 미생물에 따른 수산물의 오염은 의도하지 않게 유입된 박테리아에 따른 오염을 말하며 Regulation(EC) No.2073/2005에 규정된 수산물의 위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미생물에 따른 오염은 히스타민의 높은 함량 수준 등을 말하는데, 부주의한 온도관리로 인해 발생하며 참치와 정어리 등에서 종종 발견됨
- 히스타민의 경우, 수산물의 즉각적인 냉각 및 모든 관리 단계에서의 적절한 온도관리를 바탕으로 예방할 수 있듯이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어 가능함

〈표 4-9〉 EU 라벨링 관련 법률 근거

구분	내용
CMO 관련 규정	2013년 12월 11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U) No.1379/2013"은 어업 및 수산제품 시장의 통 규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Council Regulations(EC) No. 1184/2006" 및 "(EC) No.1224/2009"를 개정한 것이며, "Council Regulation(EC) No.104/2000"을 대체한 규정이다.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병조림)에 대한 일반적인 마케팅기준: 1992년 6월 9일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6/92" 정어리 통조림(병조림)에 대한 일반적인 마케팅기준: 1989년 6월 21일 "Council Regulation (EEC) No 2136/89 “
FIC 규정	2011년 10월 25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U) No.1169/2011"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s(EC) No.1924/2006" 및 "(EC) No.1925/2011"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 지침 87/250/EEC", "이사회 지침 90/496/EEC", "위원회 지침 1999/10/EC", " 지침 2000/13/EC", "위원회 지침 2002/67/EC" 및 "2008/5/EC" 및 "Commission Regulation(EC) No.608/2004"을 대체한 규정이다.
식품첨가물	2008년 12월 1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식품첨가물에 관한 "Regulation(EC) No. 1333/2008"
위생규칙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동물기원식품에 대한 특정위생규정에 관한 "Regulation 853/2004"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식품표기 관련 법령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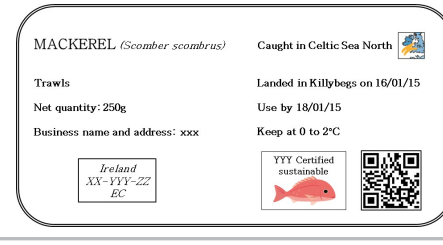
- 최근에는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표시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지침 Directive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Regulation 1169/2011)을 개정함 유럽연합은 2014년 12월 '지침 No.1379/2013'을 통해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사전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가공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부가공 수산물에도 적용됨
- 변경된 규정에는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표시할 것,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할 것,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할 것,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할 것 등 소비자 안전 중심의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EU는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라벨을 통해 제품 어획 및 생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유럽연합은 2014년 12월 '지침 No.1379/2013'을 통해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사전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가공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부가공 수산물에도 적용됨
-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중 하나는 어획에 사용된 장비와 어획지역을 명시해야한다는 조항과 알레르기 관련 목록이 라벨에 포함된다는 변경사항임[10)]
- 다음 요구사항은 CMO 규정의 부속서 1(a, b, c 및 e)의 어업 및 양식제품에 적용되며, 즉, 미가공 및 일부가공 제품(예 : 소금에 절인 제품, 훈제 제품, 껍질째 조리된 새우)에 적용됨. 이는 '사전포장제품' 및 '사전비포장제품' 모두에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CMO 규정과 FIC 규정 모두 적용받음

10) EU 식품 라벨링 지침 No.1169/2011

〈표 4-10〉 미가공/일부가공 수산물 및 양식제품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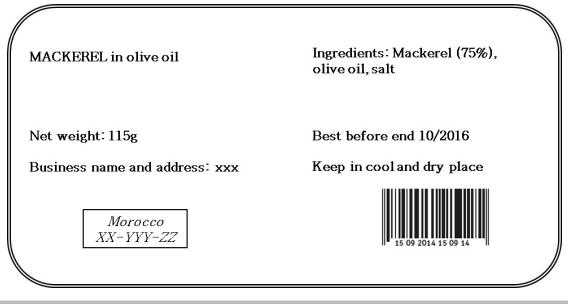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필수표시 항목	사전포장제품 및 사전비포장제품 (공통)	– 제품명칭/학명 – 생산방법 – 어획구역/국가/수역/생산국가 – 어획기구	– 해동여부 – 최소유효기간/사용기한 – 알레르기 정보
	사전포장제품 (단독)	– 구성성분정보 – 구성성분함량 – 순중량(순수량) – 보관 및 사용 상태 – 식품가공업자 명칭 및 주소 – 원산지/생산지 – 사용방법(필요시) – 영양정보(2016년 12월 13일부터 필수표시)	– 보호가스 사용여부 – 냉동일자 – 수분 첨가여부 – 기타 동물성 단백질 첨가여부 – 생선 혼합여부 – 인증마크 – 포장일자
선택표시항목		– 어획일자 – 양륙일자 – 양륙항 – 어획기구 상세설명 – 선박국적	– 환경, 윤리, 사회 관련 정보 – 생산 기술 및 방법 – 영양 관련 강조표시 – 기타
라벨링 예시			

필수정보는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가능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함

- 사전 포장된 제품의 경우, 필수정보를 제품의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표시되어야하며, CMO 규정이 적용되는 사전포장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라벨, 안내문구,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 관련 정보는 제품 포장의 그림, 문자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기타 방해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함
- 용기나 포장의 가장 넓은 표면적이 80㎠ 미만인 경우 라벨의 가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문자 x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1.2㎜ 이상의 글꼴 크기로 인쇄되어야 하며, 엽서의 절반보다 작은 포장의 크기의 경우 글꼴 크기가 0.9㎜이상이어야 함
- 제품명 전체와 순중량이 동일한 시야 내에 확인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함

〈표 4-11〉 EU 기타 가공 수산물 및 양식제품 라벨링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2">필수표시항목</td><td>사전포장제품</td><td>– 제품명칭
– 해동여부
– 구성성분정보
– 알레르기 유발 구성성분 및 가공공정 정보
– 구성성분함량
– 순중량(순수량)
– 최소유효기간/사용기한
– 보관 및 사용 상태
– 식품가공업자 명칭 및 주소
– 원산지/생산지
– 사용방법
– 영양정보(2016년 12월 13일부터 필수표시)

(추가)
– 보호가스 사용여부
– 수분 첨가여부
– 생선 혼합여부
– 기타 동물성 단백질 첨가여부
– 참치 · 다랑어 · 청어 통조림 제품 : 마케팅 표준</td></tr>
<tr><td>사전비포장제품</td><td>– 알레르기 정보</td></tr>
<tr><td colspan="2">선택표시항목</td><td>– 필수표시항목 표기를 방해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명확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표기 가능</td></tr>
<tr><td colspan="2">라벨링 예시</td><td> 
</td></tr>
</table>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일반 의무사항과 더불어 제품별로 필수 표시사항이 추가됨

• 해면 어획 수산물(활어, 신선, 냉동상태)의 경우 어종 명칭(예 : 자연산 연어), 학명(예 : Pollachius virens), 어획지역(일부 세부 어획지역) 및 어획 방법(예 : 트롤어선)은 필수적으로 표시가 요구되는 항목임

〈그림 4-1〉 해면어획 수산물 및 수산식품 식품표시 예



자료 : FishStatJ Global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자 : 2017. 12. 8.)

K-Fish Information Center

CHAPTER / 5

한국산 수산물 진출 전략

제 1 절 독일 시장 진출 전략

제 2 절 영국 시장 진출 전략



한국산 수산물 진출 전략

한국의 對독일 시장 진출 전략

대형마트를 통한 진출, 라벨링 통해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신뢰성 구축, 유럽공동관세법의 수입 통관절차에 대한 준비 필수

- 독일 전체 수산물의 48%는 대형마트 체인을 통해 판매되며, 냉동어류 및 생선통조림의 경우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체인을 통한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시장의 경우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독일의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통 채널로 부상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 높은 고령화로 인해 주로 중 · 고령층에서의 수산물 소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독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우리만의 레시피를 개발하여 한국 제품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소비 장소가 가정인 만큼 가정 취식을 위한 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이 때 가정 구성원 수에 맞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포장단위가 요구된다.
-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EU 28개국에 대한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유럽공동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 EU의 변경된 지침 No.1379/2013을 통해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필수정보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규정하고 있기에 수출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독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과 품질,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라벨링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한국의 對영국 시장 진출 전략

간편식 및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전자상거래 급부상, 지속가능인증 요구, 유럽공동관세법의 수입 통관절차에 대한 준비 필수

- 영국 내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고가의 건강식으로 여겨지던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주요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수산 제품은 간편식 형태의 150~300kg 사이로 소포장된 제품이 주를 이룬다.
- 1인 가구 증가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간편식 섭취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1인당 간편 조리식(HRM) 소비액이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HRM 형태로의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영국의 소비자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부상하고 있다.
- 시장조사기관 MINTEL에 의하면 2017년 6월 기준 영국 식료품 온라인 구매 금액은 11.1억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약 15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인의 60%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이 어려운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의 중소기업들도 에이전트 없이 온라인 직판이 가능한 만큼 판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 영국 내 한국의 이미지는 우호적이며, 한국 식품섭취 경험 역시 최근 1~2년 내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37%일 정도로 높다. 이에, 식품 수출 국가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 영국은 지속가능인증과 친환경 인증을 중요시 하기에 영국 시장 진출 시 라벨링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원산지, 어획방법 또는 양식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2017 글로벌 한류실태조사(2017)

국외문헌

EUMOFA, The EU Fish Market(201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EMFF) "United Kingdom"

Seafish, Seafood Industry Fact sheet : Seafood Consumption(201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RIN Report: United Kingdom Retail Foods(201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United Kingdom Supermarket Chain Profiles(2016)

베이징 화경시점정보자문 유한공사(2017)

서유럽 수산식품 시장 분석 및 전망 분석(2017)

웹사이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www.kofice.or.kr)

ASDA(www.asda.com)

EUMOFA(www.eumofa.eu/)

European Commission(www.ec.europa.eu/fisheries)

Intrafish(www.intrafish.com)

JETRO(www.jetro.go.jp/)

KANTAR UK INSIGHTS(www.uk.kantar.com)

Morrisons(www.groceries.morrisons.com)

Sainsbury's(www.sainsburys.co.uk/)

SEAFISH(http://www.seafish.org)

SeafoodSource News(www.seafoodsour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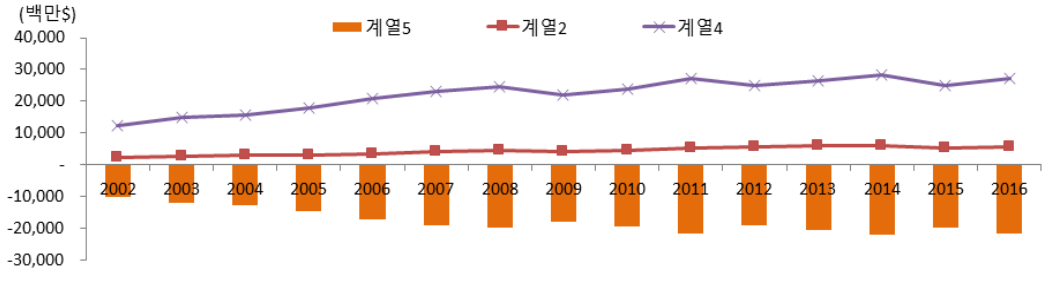
Tesco(www.tesco.com)

The Guardian(www.theguardian.com)

부록 1.

□ EU 수산물 교역 동향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물량(천 톤)	3,318	3,316	3,786	3,833	2,894
	금액(백만 $)	5,719	6,053	6,202	5,318	5,481
수입	물량(천 톤)	8,325	9,852	7,909	8,128	8,371
	금액(백만 $)	24,833	26,624	28,225	25,054	27,175
무역수지(백만 $)		△19,113	△20,571	△22,023	△19,736	△21,694



□ 국가별 수입 동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28,225	25,054	27,175
1	노르웨이	6,711	6,127	7,213
2	중국	2,026	1,818	1,952
3	모로코	1,255	1,219	1,384
4	아이슬란드	1,233	1,226	1,271
5	에콰도르	1,417	1,140	1,240
6	미국	1,158	1,135	1,145
7	베트남	1,205	1,126	1,133
8	인도	1,165	1,021	1,045
9	아르헨티나	750	692	734
10	페로제도	721	561	701

□ 품목별 수입 동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28,225	25,054	27,175
1	연어	6,051	5,253	6,447
2	새우	5,434	4,675	4,682
3	대구	2,816	2,747	2,934
4	다랑어	3,233	2,624	2,605
5	오징어	944	869	1,178
6	명태	864	838	819
7	문어	581	629	678
8	민대구	657	595	598
9	어분	557	413	427
10	넙치	333	289	354

□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천 톤,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909	28,225	8,128	25,054	8,371	27,175	3.0	8.5
1	노르웨이	1,501	6,711	1,562	6,127	1,451	7,213	△7.1	17.7
2	중국	533	2,026	503	1,818	544	1,952	8.1	7.4
3	모로코	319	1,255	381	1,219	355	1,384	△6.9	13.6
4	아이슬란드	273	1,233	330	1,226	342	1,271	3.9	3.7
5	에콰도르	214	1,417	215	1,140	224	1,240	4.6	8.7
6	미국	267	1,158	267	1,135	267	1,145	△0.2	0.8
7	베트남	286	1,205	267	1,126	268	1,133	0.5	0.6
8	인도	185	1,165	182	1,021	186	1,045	1.8	2.4
9	아르헨티나	147	750	142	692	144	734	1.5	6.1
10	페로제도	183	721	155	561	222	701	42.7	24.9
11	러시아	141	575	150	597	164	626	9.3	4.9
12	칠레	237	651	141	542	149	580	6.0	6.9
13	터키	119	479	136	488	163	575	20.4	17.9
14	그린란드	115	467	116	422	148	520	27.3	23.4
15	캐나다	66	586	66	611	57	491	△13.5	△19.6
16	태국	147	858	111	532	93	466	△16.6	△12.4
17	페루	268	612	168	423	154	419	△8.7	△0.9
18	인도네시아	77	493	70	399	74	418	5.4	4.8
19	방글라데시	39	440	33	359	31	338	△6.8	△5.7
20	나미비아	70	339	72	306	73	317	0.5	3.7
기타 국가		2,722	5,082	3,060	4,311	3,262	4,604	6.6	6.8

자료 : GTA

□ 노르웨이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500,614	6,711,373	1,562,140	6,126,574	1,451,218	7,213,414	△7.1	17.7
1	연어	711,598	4,893,368	782,311	4,390,647	737,676	5,374,203	△5.7	22.4
2	대구	198,353	932,197	178,727	900,921	184,226	935,394	3.1	3.8
3	청어	99,297	161,485	85,424	132,027	98,682	176,048	15.5	33.3
4	송어	6,865	45,643	11,755	55,829	16,135	100,135	37.3	79.4
5	해덕	36,242	123,447	36,144	104,088	40,339	98,756	11.6	△5.1
6	새우	8,115	86,637	7,672	89,633	8,060	81,573	5.1	△9.0
7	어분	51,862	61,722	67,396	86,705	44,588	68,558	△33.8	△20.9
8	검정대구	17,035	41,110	23,003	50,470	27,133	55,292	18.0	9.6
9	넙치	5,600	41,820	5,121	38,317	4,831	38,023	△5.7	△0.8
10	고등어	29,720	49,946	23,637	33,009	18,122	27,222	△23.3	△17.5

□ 중국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33,411	2,026,100	503,119	1,817,580	544,102	1,952,078	8.1	7.4
1	명태	165,117	440,127	156,484	409,542	156,169	390,856	△0.2	△4.6
2	대구	82,349	342,369	77,887	340,221	87,476	382,179	12.3	12.3
3	연어	39,653	218,295	31,933	187,599	35,507	196,472	11.2	4.7
4	오징어	29,539	102,222	27,473	100,426	31,037	133,462	13.0	32.9
5	새우	28,004	176,019	27,761	162,976	21,755	120,950	△21.6	△25.8
6	넙치	22,718	79,791	21,644	70,710	25,439	85,390	17.5	20.8
7	틸라피아	21,148	62,257	21,177	52,490	19,366	43,477	△8.6	△17.2
8	다랑어	11,553	49,728	13,390	44,062	13,073	33,665	△2.4	△23.6
9	해덕	5,672	31,335	5,714	29,836	6,477	24,424	13.3	△18.1
10	검정대구	7,955	29,596	6,525	24,673	5,653	21,115	△13.4	△14.4

□ 모로코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19,098	1,254,686	380,910	1,218,822	354,645	1,384,084	△6.9	13.6
1	문어	30,970	268,118	46,391	343,436	45,547	372,700	△1.8	8.5
2	오징어	28,089	177,620	27,026	144,661	37,842	235,892	40.0	63.1
3	정어리	57,269	184,696	59,483	160,710	76,890	195,529	29.3	21.7
4	새우	15,713	208,081	21,570	189,608	18,374	168,195	△14.8	△11.3
5	멸치	13,022	115,587	11,755	103,984	14,006	118,527	19.2	14.0
6	어분	29,342	38,578	35,133	51,590	50,596	68,646	44.0	33.1
7	고등어	11,536	60,690	13,845	55,062	14,156	56,526	2.2	2.7
8	돔	1,495	16,634	1,276	14,227	1,407	15,742	10.3	10.6
9	서대	2,094	15,928	2,097	12,629	2,510	13,417	19.7	6.2
10	새치	940	9,640	1,172	10,644	1,166	11,154	△0.5	4.8

□ 아이슬란드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72,697	1,232,683	329,529	1,225,927	342,484	1,270,889	3.9	3.7
1	대구	99,796	707,708	98,242	664,982	109,935	731,114	11.9	9.9
2	검정대구	14,149	66,259	12,189	58,283	12,582	55,011	3.2	△5.6
3	새우	5,850	60,253	3,485	45,216	4,948	48,310	42.0	6.8
4	해덕	7,133	49,703	9,030	56,908	8,719	47,103	△3.4	△17.2
5	어분	13,700	24,867	51,379	85,310	20,365	35,251	△60.4	△58.7
6	넙치	3,257	20,369	3,884	21,446	4,157	22,028	7.0	2.7
7	청어	9,029	20,136	9,129	17,947	10,189	21,107	11.6	17.6
8	연어	624	4,935	542	3,867	2,620	18,601	383.3	381.0
9	고등어	6,342	11,746	11,524	14,498	13,282	16,969	15.3	17.0
10	바닷가재	1,145	19,373	858	13,761	782	16,336	△8.8	18.7

□ 에콰도르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14,279	1,416,935	214,568	1,140,494	224,396	1,240,134	4.6	8.7
1	새우	91,592	801,164	93,167	641,868	95,999	713,347	3.0	11.1
2	다랑어	117,019	595,331	114,400	472,937	119,790	498,311	4.7	5.4
3	새치	871	5,203	1,333	8,242	1,902	10,587	42.8	28.5
4	상어	182	442	570	1,371	502	1,060	△12.0	△22.7
5	고등어	701	1,447	400	791	484	929	21.0	17.4
6	민대구	1,054	1,729	467	842	190	548	△59.4	△34.9
7	오징어	0	0	13	44	186	455	1,284.7	937.9
8	어분	269	351	25	27	175	307	603.2	1,045.4
9	연어	34	272	38	482	7	79	△81.3	△83.6
10	관상어	0	10	0	4	1	39	1,077.5	883.1

□ 미국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66,894	1,157,973	267,261	1,135,440	266,651	1,144,875	△0.2	0.8
1	명태	126,966	345,168	118,758	330,902	125,989	346,717	6.1	4.8
2	연어	30,497	222,393	29,169	190,786	33,039	205,855	13.3	7.9
3	바닷가재	8,980	138,386	8,028	132,629	8,107	133,414	1.0	0.6
4	대구	32,680	94,117	40,689	118,203	33,801	98,438	△16.9	△16.7
5	가리비	4,108	91,275	3,750	85,653	3,657	79,708	△2.5	△6.9
6	오징어	10,461	25,615	13,378	33,929	13,418	57,356	0.3	69.0
7	새우	4,121	37,380	4,685	49,406	4,147	44,510	△11.5	△9.9
8	민대구	14,367	42,862	15,662	45,186	12,033	34,867	△23.2	△22.8
9	캐비아	1,087	33,228	1,382	31,326	1,213	29,298	△12.3	△6.5
10	소금	8,368	19,892	7,736	10,863	8,706	17,001	12.5	56.5

□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천 톤,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909	28,225	8,128	25,054	8,371	27,175	3.0	8.5
1	연어	863	6,051	908	5,253	888	6,447	△2.2	22.7
2	새우	587	5,434	567	4,675	577	4,682	1.7	0.2
3	대구	596	2,816	578	2,747	621	2,934	7.4	6.8
4	다랑어	688	3,233	659	2,624	664	2,605	0.7	△0.7
5	오징어	219	944	207	869	238	1,178	14.9	35.6
6	명태	321	864	310	838	313	819	1.0	△2.2
7	문어	88	581	102	629	101	678	△1.6	7.8
8	민대구	166	657	166	595	164	598	△1.0	0.6
9	어분	372	557	279	413	284	427	1.5	3.3
10	넙치	72	333	69	289	82	354	19.2	22.8
11	바닷가재	20	295	20	299	20	319	2.9	6.8
12	가리비	22	311	18	286	16	275	△13.5	△3.9
13	메기	133	319	115	282	109	250	△4.8	△11.3
14	해덕	60	266	65	257	72	238	12.0	△7.4
15	정어리	71	215	70	180	84	210	21.0	17.0
16	청어	115	189	106	164	116	207	9.5	25.7
17	멸치	25	190	28	194	26	197	△6.3	1.8
18	송어	25	153	28	139	35	196	23.9	41.0
19	고등어	96	204	90	164	98	180	8.6	10.0
20	검정대구	48	179	52	179	56	175	8.4	△2.2
기타 품목		3,321	4,432	3,691	3,981	3,808	4,205	3.2	5.6

자료 : GTA

□ 연어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863,392	6,051,155	908,419	5,253,035	887,986	6,446,945	△2.2	22.7
1	노르웨이	711,598	4,893,368	782,311	4,390,647	737,676	5,374,203	△5.7	22.4
2	페로제도	44,864	409,179	31,327	258,082	39,077	370,839	24.7	43.7
3	칠레	27,602	238,999	26,252	172,156	30,877	218,649	17.6	27.0
4	미국	30,497	222,393	29,169	190,786	33,039	205,855	13.3	7.9
5	중국	39,653	218,295	31,933	187,599	35,507	196,472	11.2	4.7
6	캐나다	6,357	44,949	5,199	35,973	7,125	43,511	37.1	21.0
7	아이슬란드	624	4,935	542	3,867	2,620	18,601	383.3	381.0
8	세르비아	121	1,731	163	1,928	592	7,134	263.1	270.0
9	태국	487	3,897	659	4,972	645	4,311	△2.1	△13.3
10	스위스	79	2,992	38	2,756	38	2,694	△0.3	△2.3

□ 새우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86,907	5,433,771	566,802	4,674,542	576,568	4,682,061	1.7	0.2
1	에콰도르	91,592	801,164	93,167	641,868	95,999	713,347	3.0	11.1
2	인도	80,487	769,704	78,829	638,139	77,784	613,134	△1.3	△3.9
3	베트남	44,199	486,974	47,566	480,275	52,400	519,230	10.2	8.1
4	아르헨티나	65,546	504,983	71,098	480,474	78,384	511,779	10.2	6.5
5	방글라데시	35,393	419,584	30,113	342,851	28,619	328,011	△5.0	△4.3
6	그린란드	53,672	248,740	45,708	219,916	52,628	245,752	15.1	11.7
7	캐나다	34,589	308,600	33,345	334,886	22,783	200,056	△31.7	△40.3
8	모로코	15,713	208,081	21,570	189,608	18,374	168,195	△14.8	△11.3
9	인도네시아	15,074	187,940	11,648	124,665	13,328	141,173	14.4	13.2
10	중국	28,004	176,019	27,761	162,976	21,755	120,950	△21.6	△25.8

□ 대구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95,743	2,816,081	578,242	2,746,628	621,050	2,933,853	7.4	6.8
1	노르웨이	198,353	932,197	178,727	900,921	184,226	935,394	3.1	3.8
2	아이슬란드	99,796	707,708	98,242	664,982	109,935	731,114	11.9	9.9
3	러시아	95,745	395,052	91,709	385,753	98,367	409,448	7.3	6.1
4	중국	82,349	342,369	77,887	340,221	87,476	382,179	12.3	12.3
5	페로제도	22,874	115,790	25,338	125,416	28,150	125,862	11.1	0.4
6	미국	32,680	94,117	40,689	118,203	33,801	98,438	△16.9	△16.7
7	그린란드	16,952	48,770	20,449	50,457	26,038	68,002	27.3	34.8
8	뉴질랜드	13,918	54,901	13,175	47,722	18,659	65,593	41.6	37.4
9	칠레	10,537	35,452	11,137	36,332	9,402	29,586	△15.6	△18.6
10	나미비아	6,473	26,560	5,275	19,710	5,609	20,334	6.3	3.2

□ 다랑어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88,443	3,233,172	659,048	2,624,069	663,502	2,605,410	0.7	△0.7
1	에콰도르	117,019	595,331	114,400	472,937	119,790	498,311	4.7	5.4
2	세이셸	57,929	342,897	58,361	258,605	72,324	286,600	23.9	10.8
3	모리셔스	62,665	333,149	62,280	270,897	58,142	257,627	△6.6	△4.9
4	가나	26,087	156,918	38,253	196,188	41,732	174,544	9.1	△11.0
5	태국	63,853	315,409	47,930	200,089	39,461	163,104	△17.7	△18.5
6	필리핀	47,919	186,252	56,256	185,050	45,848	153,232	△18.5	△17.2
7	코트디부아르	23,803	147,883	26,939	111,111	30,203	132,482	12.1	19.2
8	파푸아뉴기니	28,759	140,216	30,824	120,529	30,703	115,533	△0.4	△4.1
9	인도네시아	28,724	122,090	23,753	106,409	26,115	107,494	9.9	1.0
10	한국	11,284	62,803	12,029	74,818	14,322	99,012	19.1	32.3

□ 오징어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18,587	944,215	207,405	869,172	238,214	1,178,217	14.9	35.6
1	모로코	28,089	177,620	27,026	144,661	37,842	235,892	40.0	63.1
2	인도	37,283	128,793	38,993	130,636	47,805	182,259	22.6	39.5
3	포클랜드제도	39,071	121,858	28,907	115,375	32,763	173,485	13.3	50.4
4	중국	29,539	102,222	27,473	100,426	31,037	133,462	13.0	32.9
5	태국	22,679	138,986	17,085	97,685	15,852	106,538	△7.2	9.1
6	남아프리카공화국	4,077	38,544	8,190	52,625	9,967	67,190	21.7	27.7
7	미국	10,461	25,615	13,378	33,929	13,418	57,356	0.3	69.0
8	베트남	7,329	40,111	6,275	33,279	6,102	33,370	△2.8	0.3
9	모리타니	4,530	25,421	6,938	35,031	5,761	32,503	△17.0	△7.2
10	뉴질랜드	5,109	13,631	4,521	9,735	12,619	30,843	179.1	216.8

□ 명태

단위 : 톤, 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16/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21,369	864,418	310,104	837,601	313,098	819,420	1.0	△2.2
1	중국	165,117	440,127	156,484	409,542	156,169	390,856	△0.2	△4.6
2	미국	126,966	345,168	118,758	330,902	125,989	346,717	6.1	4.8
3	러시아	27,981	75,178	33,056	91,756	29,216	77,301	△11.6	△15.8
4	한국	86	182	138	433	1,242	3,253	802.7	650.9
5	베트남	1,027	3,044	1,317	3,835	227	602	△82.7	△84.3
6	태국	100	441	123	517	46	210	△62.1	△59.4

부록 2.

□ 독일 10대 유통점 현황

단위 : 억유로

순위	유통매체 이름	세계 총 매출	독일 내 총 매출
1	Metro Group	667	259
2	Schwarz-Gruppe	660	258
3	Aldi	527	224
4	REWE Gruppe	497	348
5	Edeka Gruppe	448	456
6	Lekkerland	123	68
7	Tengelmann	108	74
8	dm	62	45
9	Globus	61	38
10	Schlecker	45	35

자료 : Metro AG 2012/13

□ 독일 6대 할인점 현황

단위 : 억유로, %

순위	유통매체 이름	매출액	시장점유율
1	Aldi Nord+Aldi Sued	247	38.9
2	Lidl	157	24.7
3	Netto(Edeka)	118	18.5
4	Penny	76	11.9
5	Norma	27	4.2
6	Netto(Stavenhagen)	11	1.8

자료 : Metro AG 2012/13

□ 독일 유통산업 구조

- 독일 유통업은 식품류, 비식품류로 구분, 상이한 유통방식 체계를 지님. 식품류 유통업체는 빠른 유통을 구축으로 모든 종류의 유통 업태 매장에 유통됨. 그러나 식품류는 백화점이나, 전문매장 등에 유통이 되며 상대적으로 할인점 유통은 빈약
- 독일 유통업은 유럽 다른 국가 유통업에 비해 복잡하고 여러 단계 구축이 되어있음. 독일 도매상은 물품을 생산하는 도매상,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구분. 유통 대형 도매상은 중간공급자인 소매상에 물품을 유통하며 여러 단계로 구축
- 독일 유통 구조 단계 중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은 독자적 절차의 유통관계를 맺고 있음. 의약품은 주로 도매상이 중간 유통을 하고 있으며, 화장품 도매상은 복잡한 유통관계를 거쳐 각 유통 업체별 매장으로 유통됨

□ 독일 유통산업 업태별 종류 및 특징

- 독일 유통산업에는 대형소비매장, 소형소비매장, 할인점, 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구성됨. 대형소비매장은 규모 2,500m^2 이상의 전문 품목 매장, 소형 소비매장은 1,000~2,499m^2 전문 품목 매장을 의미. 대형 슈퍼마켓은 주로 식품류 유통매장임. 할인점은 할인을 목표로 하는 매장으로 다른 매장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나 진열 서비스 등에서 빈약
- 'Metro AG'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특히 유럽 다른 국가보다 할인점(Discounter)이 발전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2011년 독일 5대 할인점(Discounter)의 연간 매출액은 총 634.2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식료품에 경우 총 매출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형유통업체가 대형 슈퍼마켓, 할인매장, 소비매장, 전자상품매장, 의류전문매장 등을 통합해 운영, 구분 양상이 사라지고 있음

□ 영국 10대 유통점 현황

단위 : %

순위	유통매체 이름	독일 내 총 매출
1	Tesco	30.8%
2	Asda	17.2%
3	Sainsbury's	14.0%
4	Morrisons	10.1%
5	Co-op	6.6%
6	Waitrose	3.8%
7	Aldi	2.1%
8	Lidl	1.8%
9	Iceland	1.2%
10	Spar	1.1%

자료 : UK Retail Market 2012

□ 영국 유통산업 구조

-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적자 개선의 이유로 제조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
- 민간부문에서는 아직도 다단계의 중개상을 통한 공급사슬 형성이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을 아시아 등 비유럽 국가로부터 조달하는 데 해당 지역 제조사들은 사후처리 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 내 중개상(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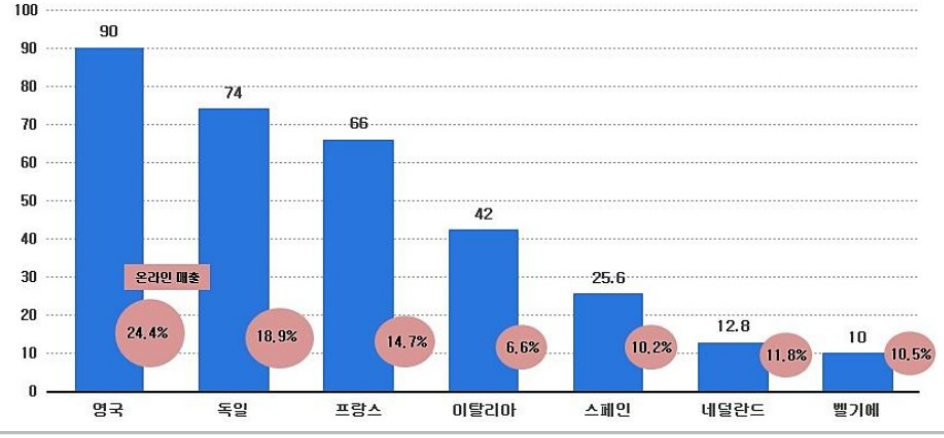
□ 영국 유통산업 업태별 종류 및 특징

- 영국 유통업체들의 업태는 디스트리뷰터, 브로커, 에이전트 등으로 분류되며 디스트리뷰터는 일반적으로 취급상품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상을 의미함.(공공조달의 경우에도 이 구분을 따르고 있음.)
- 소매상의 경우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점포 또한 소매상에 포함됨

부록 3

□ 2015년 기준, 유럽 국가별 온 · 오프라인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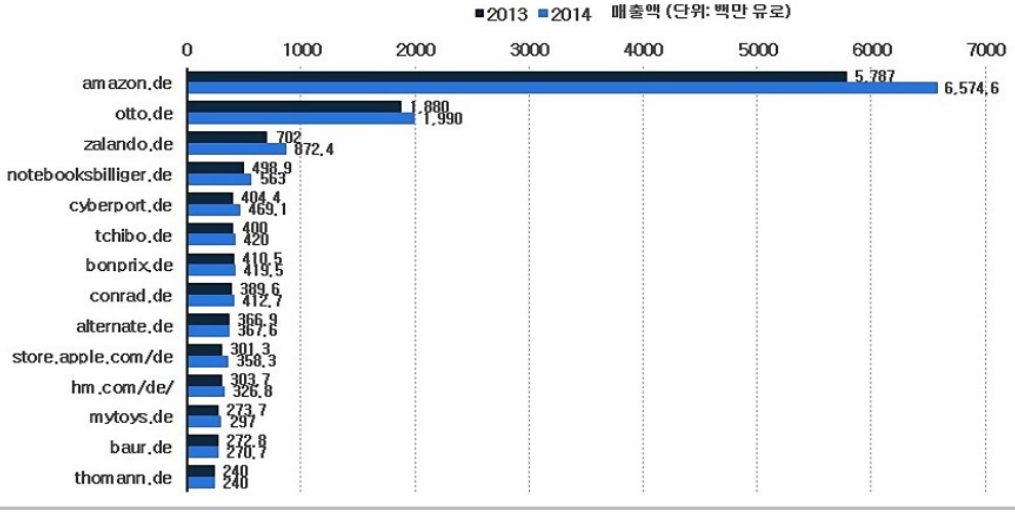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유로, %



자료 : Handelsblatt

□ 주요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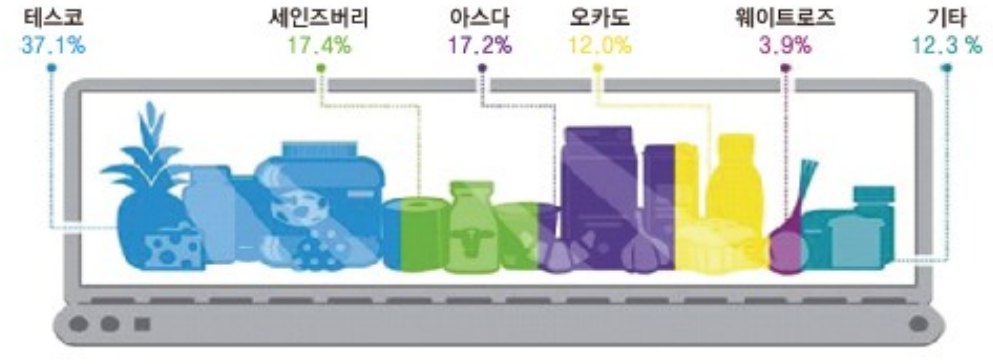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유로, %



자료 : Handelsblatt

□ 주요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점유율 기준)

단위 : %



자료 : Kantar

해외시장 심층 분석 *vol.8*

K·FISH Information Center

한국산 수산물의 독일·영국 시장 진출 전략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외 시 장 분 석 센 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콜센터 1644-6419 팩스 051-797-4599

http://www.kfishinfo.net E-mail : kfic@kmi.re.kr